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58 1982년 10월 20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Wednesday, October 20, 1982

OCT 22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이민가족중 병역해당자 한국방문후

"출국보류" 많다

지역공관에 신고해야 병역면제 받아

캐나다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의 자녀, 또는 유학생들이 한국병역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일시 귀국했다가 출국 보류되는 사례가 있다. 전가족이민의 경우 출국시에는 연령미달로 병역면제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나 해외에 거주함으로서 병역신고의무연령(18세)이 되었는데도 적절한 신고를 마치지 못해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해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다.

토론토총영사관의 이순천부영사는 "한국국적소지자는 남자의 경우 누구든지 병역의무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신고연령이 되었을때 해외공관을 통해 신고를 마치면 면제 또는 징집연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총영사관에 의하면 전가족 이민의 경우 병역해당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모의 이혼으로 한쪽이 이민을 포기, 귀국했을때는 면제를 받지 못하는 수도 있다. 또한 주재원의 가족등 장기체류자의 가족중 병역해당자는 일정기간까지 징집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학생의 경우도 징집연기 허가를 받고 출국했으나 만료기간이 지나 재 연장허가를 받지 못했을때는 입국시 출국보류 되는 경우도 있다. 영사관은 유학생등 징집연기 해당자들은 병역연장허가 만료 2개월전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영사관측이 밝힌 병역신고 요령은 다음과 같다.

○전가족이민인 경우, 병역해당자는 면제허가원과 전가족영주권 사본을 구비, 해외공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재원의 자녀, 또는 유학생의 경우는 18세이상 30세미만자중 병역미필자는 국외체류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등학생은 18세, 대학생은 24세, 대학원생은 26세까지 허가되나 학기가 늦을때는 1년까지 추가 연장된다.

구비서류는 연장허가원, 목적인정증명서(재학증명서등), 국내인귀국보증서.

살인진통제 타이레놀 사건 관련

유력혐의자 수사망 압축

시카고(외신종합)－최근 시카고지역에서 독약 사이나이드가 묻은 타이레놀을 복용하고 7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유력한 혐의자가 조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혐의자 제임스·루이스(36)는 엑스트라·스트렝스·타이레놀회사사장에게 1백만달러를 은행에 예치해놓지 않으면 타이레놀에 또다시 독약을 집어 넣겠다고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로 수사망이 집중되고 있는 사람이다.

◆제임스·루이스

루이스를 유력한 범인으로 보는 이유는 일리노이 검찰당국이 타이레놀을 복용한 뒤 죽은 파울러·프린스여인이 죽은 전날인 9월30일에 어디에서 이약을 구입했는지를 조사하던 중 이 여인이 월그린약방에서 샀다는 것을 밝혀내고 마침 이 약방에서 보안용으로 찍어 놓은 필림에서 도망자 루이스와 모습이 흡사한 인물을 찾아 냈기 때문이다.

경찰에서 제공한 사진에 의하면 금발머리에 턱수염을 기른 루이스와 모습이 흡사한 남자가 프린스여인이 계산대에서 타이레놀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다.

이 사진은 촛점이 잘 맞지 않아 사진이 흐리게 보이며 루이스를 닮은 사람은 안경을 끼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사당국은 루이스가 테가 가는안경을 쓴 모습과 안경을 끼고 있지 않은 모습을 찍은 2장의 사진을 배포했다.

조사당국은 루이스와 그의부인 리안(35)의 수사망을 크게 압축, 숨어있을 것으로 보이는 개 지역을 선정 했다고 밝혔다.

현재 FBI(미연방수사국)에서는 독약이 가미된 타이레놀에 묻은 부분적인 지문을 수거, 문을비교 분석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약방의 감시용 카메라가 찍은 사진에 살인진통제 타이레놀을 복용한후 7명이 죽은 사건과 관련,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도망자 루이스와 모습이 흡사한 남자(원내)가 파울러·프린스여인이(왼쪽끝) 엑스트라·스트렝스·타이레놀을 사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주시하고 있다. 이 여인은 다음날 이약을 먹고 죽었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한국착륙 중공조종사

제3국 정치망명 요구

(서울 19일=연합)미그19전투기를 몰고 중공을 탈출, 서해를 건너 16일 하오2시34분(한국시간) 한국의 ○○공군기지에 착륙한 중공조종사는 도착즉시 제3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요구했다고 19일 국방부가 발표했다.

박종식국방부대변인은 이 조정사를 25세의 「우」라고만 밝히고, 「착륙즉시」 제3국행을 원했다고 말했다.

제3국이 어느 나라인지에 대해서는 일절 밝혀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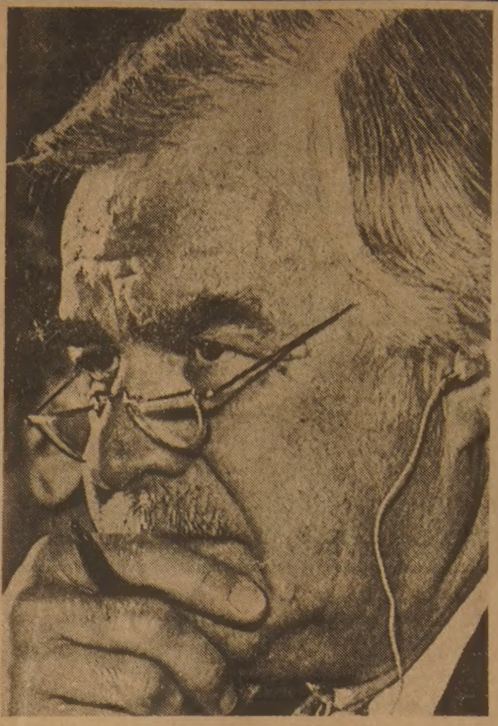
박대변인은 이어 우씨는 현재 한국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즉시 관계법에 의해 처리될 것 이라고 덧 붙였다.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중공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한국으로 탈출하기는 이번이 2번째로, 지난 61년 9월에는 중공조종사 2명이 비행기 한대를 몰고 한국에 도착한 일이 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아직 중공과는 공식적인 접촉 채널이 없다.

오늘의 예금금리			
한인신용조합			
기 간	일반정기예금	오뚜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2%		11.5%
90일	12.5%		11.5%
180일	12.75%	12.75%	12.0%
365일	12.75%	12.75%	12.0%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존·로바츠 엽총 자살

65세, 10년간 「온」주 수상

뇌일혈이후 신병 비관한듯

61년부터 10년간 온타리오주 수상을 지낸 존·로바츠씨가 1년여전 뇌일혈로 쓰러진 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함을 비관한 끝에 18일 아침 자택의 목욕실에서 엽총으로 자살했다. 향년 65세.

친지들은 그가 최근 과거처럼 걷고 말 할수 없음을 비관해 오긴 했지만 늘 유해한 그의 성품을 지켜왔으며 그의 투병에의 의지 또한 놀랄만 했다고 말했다.

로바츠씨는 이날 아침 8시경 로즈데일자택의 자택 목욕실에서 엽총으로 머리를 쏘았고, 6년전 결혼한 그의 2번째 부인 캐서린(36)여사가 제일 먼저 현장에 달려가 그의 시체를 발견했다.

비보에 접한 온타리오주의회는 이날 조의를 표하기 위해 일찍 폐회했고, 윌렴·데이비스수상은 "온타리오주의 영혼이자 심장의 일부였던 그분의 서거를 애도한다"고 애도했다.

로바츠전수상은 81년 8월 미 텍사스로 비지네스차 여행하던 중 뇌일혈을 일으켰었다.

10년간 온타리오주를 통치하면서 메트로·토론토의 동서간지하철, 최저임금제 입법화, 중등학교에서의 불어교육, 해밀톤및 오샤와까지 고·트랜짓연장등 많은 업적을 남긴 로바츠씨는 데이비스 현수상에 바톤을 넘기기까지 "완벽한 정치가"라는 평을 듣기도 했다.

34세때 온타리오주 런던의 시의원및 변호사였던 로바츠씨는 51년 보수당 「온」주의원으로 선출된후 프로스트내각때 교육장관을 지냈다.

주수상에 선출된 것은 61년이었다.

조정·융화에의 수완이 능란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보트타기, 낚시, 사냥등 야외스포츠를 좋아했으며 뇌일혈이후 왼쪽 팔·다리가 마비, 즐기던 스포츠를 그전처럼 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 했었다.

유가족으로 간호원출신인 부인 캐서린여사와 이혼한 첫번째부인(별세)과의 사이에 난 딸 로빈과 의붓딸 앤등 2명의 딸을 두고있다.

외동아들인 티모디는 77년 21세의 나이로 역시 엽총자살 했었다.

한국산 케이블·칼러 TV 수입

금성, 캐나다에 2,000대 선적

(서울 19일=연합)금성사는 최근 국내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캐나다에 케이블·칼러·TV2,000대를 수출했다고 업계소식통이 19일 전했다.

선진국가에서 특수TV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 금성사는 내년초까지 북미지역에 10만대의 케이블·칼러·TV를 수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금성사는 지난 5월 케이블·칼러·TV제작에 성공, 이 분야에 선두주자가 되었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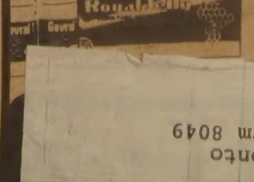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란콤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다량입하
비타민, 한약 세일
건강한 생활

비타민류
●종합비타민
●비타민-E
●간유구
●간장보호제
●지브랄-T
●로얄제리, 봉액
※새로 나온 알로베라 비타민
상어간기름 비타민

한약류
●녹용(긴림산)
●우황청심환(동인당)
●편자환, ●사향
●웅담(카나다산 진품)
●삼용환(신경통특효약)
●기형환, 용각산, 구심등

IATA
〈특별할인봉사〉
모국 방문단 월 1회 단체출발
❍ 10월26일
❍ 11월21일
❍ 12월26일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 · 2156
R) 492－7525 김 창 범

DeWitt
JEWELS LIMITED
SPECIAL

1/2 Carat
Diamond Cluster
Ring
Reg. 1,000.00
Spec. 749.95
Coin Jewelly
고급시계
이태리 수입 고급
귀금속 취급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성황이룬 문협시화전 첫날

120명 모여 리셉션, 현악4중주도

캐나다한국문인협회(회장 조정대)의 제1회 합동시화전 오픈 리셉션이 지난 15일 하오7시~10시30분 전시장인 웨이사이드화랑(9185 Yonge St.)에서 다과및 4인조 학생실내악 연주를 곁들여 거행됐다.(본보 10월9일자 참조)

약 120명의 내빈들은 김명덕, 윤영철, 독고제인, 앤김등 4명의 현악4중주단이 들려주는 모짜르트의 소야곡을 비롯한 감미로운 음악을 들으며 시와 그림과 음악의 앙상블에 파묻혀 흐뭇한 저녁을 보냈다.

이날 전시된 작품은 아래와 같다.(괄호안은 화가)

▲김미화(윤수정): 나의 조국, 봄, 임-3점
▲박성민(엄 현): 들에서, 일기-2점
▲박순배(김석환): 밤 가까이 서면, 겨울, 월력-3점
▲박옥선(장연탁): 축성, 쇼핑, (김인호): 단풍, 서울손님,(황상규).은혼가,시간-6점
▲손성호(손성호): 사랑하는 아들딸에게등-3점
▲엄 현(엄 현): 도시이야기 1,2,3-3점
▲유정자(문안나): 새벽,4월엔,음악에,소리,초대하여주십니까-5점
▲이석현(장연탁): 목숨, (황상규): 사랑 2,(김인호): 자화상-4점
▲이정원(조중형): 5월의 온타리오호수, (김화숙): 사월메모-2점
▲정봉희(김석환): 이 그리운 도시, 밤의 소묘-2점
▲조미래(이재하): 빛과 이마, (김인호): 무언곡-2점
▲조정대(박은경): 보라빛 마음, 어제 오늘 내일을 잇는 고리-2점
▲길미자: 오늘의 끝

이중 16일 현재 12점의 작품이 팔렸다. 작품값은 $100~$400 정도.

시화전은 오는 22일(금)까지 계속된다. 전시시간은 9시~오후9시, 화랑전화번호는 886-1667이다.

◆문협시화전—작품감상에 줄지은 관중들

한국종교인,총인구의 77.8%

불교, 신교, 유교, 가톨릭순

(서울 19일=연합)한국의 총인구 3천8백32만명의 77.8%에 해당하는 2천9백77만명이 종교를 믿고 있는 것으로 문교부가 19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나타났다.

이들 종파별로 보면 불교신자가 가장 많아 총인구의 29%인 1천1백13만명에 전체 신자의 37.4%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신자가 많은 종교는 개신교로 총인구의 19%에 해당하는 764만명으로 전체 종교인구의 25.6%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총인구의 13.6%를 차지하는 520만명(전체 종교인구의 17.5%)이며, 카돌릭은 144만명, 전체인구의 3.8%와 종교인구의 4.8%를 차지한다.

황해도향우회 30일 정기총회

황해도 향우회(회장 오윤섭)는 오는 30일(토) 하오2시 불루어의 뮬린혼하우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회원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김일성방문으로 우호개선

중공 미그기 40대 공급

(도꾜)북한김일성의 중공방문을 전후하여 중·소관계 정상화 움직임등 북한과 중·소 양국과의 관계가 새삼 주목을 받는 가운데 주일미군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중공이 미그21전투기 40대를 북한에 공급했음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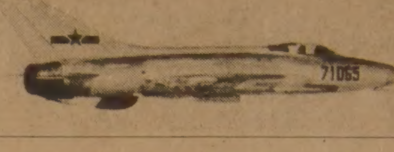
동 소식통은 미·소 양국도 정찰위성등으로 이것을 탐지했음을 전하고, 이 공급에도 불구, 북괴가 이제까지 소련에 무기공급을 의존해 온 태도를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중공의 무기공급 사실이 노리는 의도는 북괴·중공관계 긴밀화를 과시하려는데 있다고 소식통은 판단하고 있다.

중공은 미그21전투기를 금년 3월31일과 4월1일 양일간 2차에 걸쳐 중국의 서안에서 북한 신의주로 향해 각각 20대씩 공수 되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지난 4월 중공의 등소평·호요방 양 수뇌의 북한 방문과 9월 김일성의 중공방문등 두 정부의 수뇌교류로 중공·북괴 양국은 내정, 외교의 기본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중공측은 북괴가 불만을 품고 있는 일본에 대한 접근정책에 관한 설명을, 북괴측은 「공산주의국가에 있어서의 권력의 세습」문제로 외국의 비난이 강한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서로가 내정간섭은 안하기로 타협이 성립 된 것으로 보고있다.

등·호 2명의 중공수뇌가 평양을 방문한 시기는 김일성의 70돌 생일기념행사가 끝난 지난 4월22일~27일 사이 였으며, 김일성의 북경방문은 권력세습 불간섭을 공식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중공 제12회 전국대표대회가 끝난 시기를 택해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북괴·중공 관계는 더 깊어진 것으로 전한다.

미그21기 7천대가 공산권 주력기 남한 F16추가 균형불변



◆중공제 미그21기 금년봄 북한에 공급됐다.

1955년의 첫 비행이래 6천대가 제조 되었으며, 소련·동유럽등 31개국이 주력 전투기로 쓰고 있다

성능은 가볍고 회전력이 우수하며, 외부에 무기를 달지 않으면 마하2 (초음속)의 최고속도를 내나, 소형인 탓으로 항속거리가 짧고, 무장이나 레이더도 빈약하므로 소련에서는 현재 미그23으로 바꾸는 중이다.

북괴공군은 과거부터 소련제 미그21기 120대를 보유하는 외에 중공제 미그19기(F6)도 180대를 보유하고 있다.

중공은 소련과의 관계가 좋을때 미그21 초기형기술을 입수, 「F7」이란 이름으로 국산화하고 있다.

한국공군의 미국산 경전투기 F5(각종형 228대)도 미그21에 대항이 가능하며, 그밖에도 F4 팬텀(54대)를 보유하고, F16 36대도 현재 발주를 끝내고 있어 중공이 북괴에 미그21기 40대를 공급해도 남북한 공군력의 균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휘문동창회 회장에 표봉천씨

지난 16일 열린 82년도 휘문고교동창회 총회에서 표봉천(49회)씨가 회장에 선출됐다.

벌링톤에서 사업을 하는 표회장은 "오는 12월4일 연말파티(홀리데이·인)에는 동창 모두가 참가해 줄것을 당부했다. 부회장에는 이규용씨(52회)가 선출됐다.

연락처는 표봉천(1-637-5749), 이규용(243-1271)

바이올리니스트 박영대씨

11월13일 한인교향악단과 협연

토론토 한인교향악단(지휘 김승순)은 제5회 공연으로 오는 11월13일 토론토 거주의 바이올리니스트 박영대(31)씨와 협연한다.

토요일인 이날 하오 8시 라이어슨극장(43 Gerrard St. E.)에서 한인교향악단이 선사할 곡은 베토벤의 서곡 〈코리오란〉 작품 62, 브루흐 바이올린협주곡 1번 G단조 작품 26및 모짤트 교향곡 41번 〈주피터〉이다.

한인교향악단은 81년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씨와 창립공연을 가진 이후 첼리스트 정명화와의 협연, 두차례의 가족음악회등을 가지면서 꾸준히 발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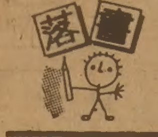
이번에 협연하는 박영대씨는 현재 토론토 심포니 바이올린주자로 브라질을 거쳐 68년 캐나다에 이민한 이후 로열·콘서버토리·오브·뮤직에서 데이빗·만코비츠교수에 사사했었다. 컨서버토리 졸업후 4년간 컨서버토리와 토론토 음악인조합(Toronto Musicians' Union)의 장학금으로 신시내티 콩그레스·오브·스트링즈에서 수학했었다.

해밀턴—필하모닉·오케스트라제1바이올린(69—72), 캐네디언·오페라·캄파니 순회 오케스트라(72—74), 키치너·워털루 심포니·오케스트라, 스트랏트포드·에스티벌·앙상블등의 콘서트·매스터로 일해온 박씨는 이번 한인교향악단과 처음으로 협연을 갖는 셈이다.

그는 최근 윌프릿·로리에 대학, 콘래드·그레이블대학에서 교편을 잡는 이외에 유진·리티히 지휘의 신포니아·스트링·앙상블에서도 활약했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영대씨

5분간의 落書



잃어버린 마음

홍 기 만

◆홍기만 씨

〈고향의 봄〉을 부르던 즐거운 어깨동무 시절이 있었고, 〈내 귀는 바닷가 소라…〉를 애송하던 소녀시절이 있었고,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던 청년시절이 있었음을 이제는 까마득히 잊고, 잃어버린채 살고 있는 것이 이민일세들인가 보다. 아마도 잊고 잃어버리도록 주위환경에 의해서 강요당한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는지 모른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다.

"맨하탄 웨스트사이드 북쪽 브로드웨이를 따라 올라가면 청과상이 늘어섰고, 수년간 이곳을 단골로 드나들던 손님들은 카운터에 이태리인 대신 한국인이 서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부지런하며 친절하다. 신선한 채소는 항상 말끔히 다듬어져 있고… 아직 소규모이기는 하나 이들의 성장은 괄목할만 하다."

토론토의 경우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거의 모든 코너 스토어의 카운터에는 우리네 한국인이 서있다. 그들은 바쁘다. 바쁘게들 돌아간다. 그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 속에 『얻는 것』의 즐거움이 있고, 그 즐거움은 잊을 수 없는 것이리라.

당초 이민지대라는 특수한 황무지에 투입된 이민일세들의 생존의식은 놀랍도록 강인했다. 그러한 집념으로 자칫 균열지기 쉬운 이민초기의 정신적인 상채기를 달래며 이민황무지에 내일을 심었고, 내일의 꿈을 키워 나갔다.

성격 역시 여러 모로 변해가고 있다.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며, 또한 관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들은 한국인 의식구조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묘한 시기심리를 버린지 오랬고, 한국사회의 밑바닥을 깊이 흐르고 있는 횡재의 허황한 꿈을 꾸지 않는 대신 시간당 임금을 정확히 계산할 줄 안다.

무척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이곳 생활양식에 서서히 흡수되어 가는 것이다. 삶의 의의보다는 삶의 방법을 강렬하게 추구하면서.

어쩌면 북미대륙의 프라구마티즘이라는 거대한 기계속 하나의 톱니가 되어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언제인가 김포공항에서 KAL기가 참사를 빚었을때 탈출을 마다하고 불타는 비행기와 함께 최후를 마친 기장의 정신자세를 이해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도 이러한 사고의 변화 때문일거다.

그러기에 「얻는 것」에의 강한 집념과 「잊고 잃어버린는 것」에의 무관심은 반비례하기 마련이다. 무섭도록 실용주의에 집착한 마음은 마냥 메말라가고 있는 것이다.

「돈의 철학」이 차겁게 빛날 때 「풍요했던 마음」은 자꾸만 스러져 간다. 소유한 자가 소유한 것을 느끼지 못하듯이 이러한 「잃어버린 마음」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캐나다뉴스〉는 사설에서 이렇게 강조한다.

"…양서를 읽는다는 것은 꿈과 지혜를 키우는 일이다. 호주머니, 침대머리, 책상위, 자동차, 연장통, 카운터등에까지 책을 비치하여 바쁜 이민생활이지만 틈틈이 탐독할 수 있는 습관을 키운다는 것은…"

이 글에서 우리는 불현듯 젊고 순수했던 시절의 향수를 느낀다.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다. 무엇인가 공허했던 마음을 메울 수 있을 것만 같다.

이민자의 가슴에 스며드는 향수! 하지만 향수는 다만 향수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잃어버린 것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여간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민황무지에 내일을 심었었고, 내일의 꿈을 가꾸었었기에 이젠 "오늘 세계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일을 위해서 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2세를 위한 내일의 꿈과 내일에의 의지를 심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각박한 「돈의 철학」만을 2세에게 물려줄 수는 더욱 없는 것이다.(문협회원)

〈소론〉

캐나다속의 한국상 ②

문 우 일 (박사. 매니토바대학 교수)

【편집자주: 이글은 매니토바대학의 문우일교수가 캐나다사회에 비치는 한국을 대학신문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지성인들의 왜곡된 애국심

그러면 이런 글이 대부분의 한국계 캐나다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캐나다 각 대학교 대학신문에 특집으로 나는데 대해서, 캐나다에 있는 한국계 캐나다인 지성인들은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어떤 한국계 캐나다인들은 통탄하며, 크리스·카바나를 찾아가서 "너희 백인 캐나다인은 캐나다 원주민을 수만명씩 학살해 왔고, 오늘날도 개만큼도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니 남의 나라 일에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할 것이다.

또 어떤 한국계 캐나다 사람들은, 특히 골프치는 중간에, 또는 교회 회식 중간에, 애국을 하던 한국을 뒤에 버린지 옛날인 그런 분들은 "그 참 속시원하다"고 하시겠고 "캐나다인인 크리스·카바나가 이런 글을 쓰는 걸 보면 역시 전두환이 같은 독재자는 찢어 죽여야 했는데" 할는지?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우리는 골프 치고, 교회 회식하는 동안, 크리스·카바나같은 서양사람들이 해주어야 한다고 해야 할른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죽기 얼마전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때 카터가 박정희씨를 옆에 놓고 인권옹호 연설을 한 것이 캐나다의 T.V.에 방영된 일이 있었다. 이때 일부 뜻있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미국 카터가 사는 동네에 가면 아직도 흑인들은 백인인 카터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예배를 못보게 하고 있으면서 무슨 "개소리를" 하느냐고 분노했었다.

또 일부인사는, 특히 인권옹호운동을 하신다는 한국계 캐나다 인사들의 어떤 분은 "그것 참 잘했다"고 시원해한 일이 있었다.

여기서 누가 옳다는 독단적 결론은 내리지 않겠다. 결국은 캐나다는 자유국가이니 누가 무슨 될 소리, 안될 소리를 해도 자유이니까. 그러나 다음 몇가지를 생각해 보자. 이런 기사 특집들이 캐나다인들에 의하여 씌여지고, 캐나다의 대학신문에 실릴 때 캐나다의 한국계 지도자들, 한인회를, 또는 지성인들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또 사실 이런 기사 내용을 외국사람에게 제공해서 각대학에 발송시키는 한국계 캐나다인이 있다면 이들은 참다운 한국국민의 인권옹호를 위한 인도주의적인 한국 애국자들인지? 아니면 대부분의 한국계 캐나다인이 모르는 사이에 매국적 행위를 하는 배반자로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짓을 못하도록 권고를 해야 할는지?

지난달 한국의 전두환 대통령이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캐나다 T.V.뉴스에 난 한국계 캐나다인들의 데모씬등, 이번 캐나다 대학가에 나타난 특집기사등은 우리들이 신중히 토론해서 우리의 대외적인 태도의 방향을 잡아볼 때가 된 것같다.

노벨상을 탄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문인인 잔—폴 싸르트르(Jean-Paul Sartre, 1961)가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다. 후진국의 지성인들 중에는 두 그룹이 있다. 한 그룹의 지성인들은 워싱톤이나 런던, 또는 파리에서 "아홍!"하면 자기도 "아홍!"하고, 선진국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따라 하는 그룹이다.

또 한 그룹의 지성인들은 현실적으로 사회문제, 정치, 철학적 문제를 이해하고, 자기의 조국, 민족에게 가장 적합한 정책들을 주장하는, 선진국들이 두려워하는 진짜 지성인들이라고 했다.

우리는 최소한, 우리중에 우리를 왜곡되게 캐나다 대학가에 반영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한국을 위하려는 지성인들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다.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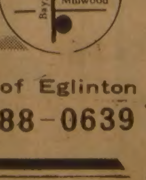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결혼을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하신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적극 금연활동 펴기로

메트로·토론토 흉곽전문의들

앞으로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아래 금연운동이 보다 활기를 찾을 것같다.

지난주 아메리칸 흉곽내과대학의 200여 신규회원들은 지난주 메트로에서 열린 연례회의에 참석한후 자신들을 찾는 환자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펴기로 다짐했다.

이들 신규회원들은 일반개업의사나 인턴들에게도 금연권장 활동에 동참해 줄것을 호소했으며 이들은 실천방안의 하나로 흉곽내과전문의와 외과의사를 중심으로 1인금연의원을 개설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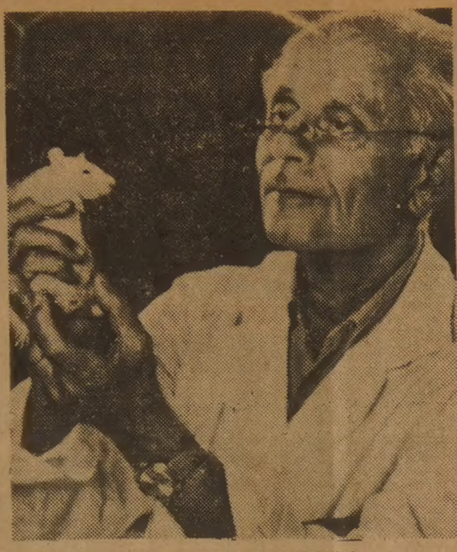
학술자료에 의하면 환자들이 담배를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가 의사들로부터 경고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메리칸 흉곽내과대학은 회원 11,000명에게 환자들에게 지급할 금연 관계자료와 금연치료약 처방법, 금연스티커등을 지급하고 있다.

흉곽내과대학에서 이와같이 적극적인 금연운동을 펴기로 한것은 미국연방무역위원회(United States 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실시한 흡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크게 실망을 한데 기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43%가 흡연이 폐암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82%가 흡연이 만성기관지염의 주요원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40%가 모든 심장병 사망자의 3분의1이 흡연자라는 연구결과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은 폐암의 80%는 흡연에 원인이 있으며 폐암환자의 90%는 5년이내에 사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별세한 한스·셀예박사

스트레스 권위자 한스·셀예 사망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캐나다의 과학자 한스·셀예박사가 지난 16일 몬트리얼의자택에서 75세의 일기로 사망했다.

1932년 오스트리아에서 캐나다로 온 셀예박사는 19개의 명예박사학위 소지자로 스트레스가 고혈압, 소화불량, 두통및 어지럼증등 많은 질병의 원인이라는 학설을 발표, 많은 지지를 받았다.

김시몬옹 7순잔치

토론토의 전 한국노년회장 김시몬옹의 「7순잔치」가 오는 23일(토) 하오1시 시내 국제반점(421 Dundas St. W.)에서 열린다.

김옹은 천주교 사목위원장(총회장)도 역임한바 있다.

교 민 동 정

◆김용대(천주교 동부구역회장)=지난 16일밤 한맘회관(439 Dundas St.E.)에서 디너와 리크레이션을 겸한 구역신자 친목의 밤을 가졌다. 약 150명이 참가, 김비오 신학생의 아코디온을 곁들인 옛동요, 흘러간 노래, 성가지도와 김용순씨의 포크댄스 지도가 이채로왔다.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90>

얼굴없는 死者 ⑭

W호텔 중국집서 식사했다는 것과 또…

다음날 오후3시 조금 지나 마인(馬仁)은 W호텔로 들어섰다.

「저 혼자 갔다올 테니까 코피숍에서 기다리십시오.」

지친 모습으로 뒤따라 들어오는 늙은 형사에게 이렇게 말한 다음 그는 벽에 붙어 있는 안내판을 바라보았다. 중국 요리집은 10층에 있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다.

「지금부터 20일쯤……정확히 말해 12월4일 여기서 혹시 상어지느러미요리를 사먹은 사람이 있읍니까?」

이런, 질문은 질문치고는 매우 쑥스럽고 우스꽝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신분을 밝히고 질문을 던졌다.

주방에서 일하고있던 중국인 주방장은 자기가 20일전쯤 상어지느러미요리를 만든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웨이터의 귀띔을받은 그는 밖으로 나와 현사와 대면했다.

「네네네……상어지느러미 요리만들었읍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한 20일 됐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그 요리를 만들지 않았읍니까?」

중국인은 웃으며 머리를 저었다.

「없읍니다. 시키는 사람이 없어서요.」

「그전에 만든 것은 언제 였읍니까?」

「그게 그러니까 11월 말일이었지요. 그때 외국에서 귀빈이 오셔서 상어지느러미요리를 만들게 되었지요. 그때 쓰다남은 지느러미를 냉장고에 보관해두었다가 12월초에 마저사용한 것입니다요.」

「그때 몇인 분 요리를 만드셨나요?」

「일인분이었읍니다.」

「네, 맞습니다. 남자 혼자서 그 요리를 시켜먹었읍니다.」

朴 男 그림

웨이터가 옆에서 맞장구를쳤다.

「그때 그 손님 시중을 당신이 했나요?」

「네, 제가 했읍니다.」

웨이터는 정확히 기억할수 있다는듯 자신있게 말했다.

「그사람 어떻게 생겼던가요?」

「덩치가 크고 언제나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읍니다.」

「그사람이 여기 단골이었나요?」

마인의 눈이 빛났다.

「단골이라기 보다는 서너번 여기에 왔었읍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데다 특별한 행동을했기때문에 기억하고 있읍니다.」

「특별한 행동이라니?」

웨이터는 그 부분에 와서 눈치를 보면서 머뭇거리다가 지배인에게 슬그머니 자리를양보하고는 자기는 물러났다.

「그게 그러니까 지난 달이었는가 저 지난 달이었는가 했을겁니다. 점심때였는데 선글라스를낀 젊은 남자하고 30대 여자가 자리에앉아점심식사를 했읍니다.」

지배인은 구석진 자리를 가리켜 보였다.

그의 이야기인즉, 이러했다.

식사도중 선글라스의 사나이가갑자기 여자를 후려치는 바람에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 위에나뒹굴었다. 쓰러진 여자를 사나이는 난폭하게 걷어차기까지했다.

<유인형수필선>

코 스 모 스

◆유인형씨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코스모스를 발견하였다. 누가 심었을까? 하늘하늘 손짓을 하는 것같다.

코스모스는 철로변이나 동구밖에서 많이 보아온 꽃이다. 그러나 판문점으로 향하던 통일로에는 저 코스모스가 끝없이 피어 있었다. 마치 가벼운 체념과 항의를 하듯이 나풀거리고 있었다.

코스모스를 바라보면 차분한 분위기에 젖게 된다. 마치 풋풋한 산과일같은 첫사랑의 소녀같은 정감과 환상이 스며 있다. 코스모스엔 아련히 피어 오르는 엷은 미소가 있다. 조금씩 풍겨오는 그 감동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면 언제 그랬느냐 싶도록 집념이나 애증을 털어버린다. 망각하는 것이다.

산뜻하고 초연한 자세로 무리져 피어나는 코스모스는 마치 교포를 같다. 순수하고 소박한 꿈을 꾼다. 비록 돼지같이 먹고, 소같이 일이야 할지언정 가슴속에는 코스모스처럼 하늘거리는 상쾌함이 있다. 가벼운 과거의 체념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 보려는 현재가 있다.

불모지에서도 잘도 뿌리내려 무리져 피어나는 코스모스……계속적인 열원으로 나풀거리는 저 유연한 모습이란 첫사랑을 간직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아련함이 있다.

하늘의 코스모스는 현실적인 억눌림과 고난을 초월한 꽃이다. 정말 누가 이 강변로 오솔길에 코스모스를 뿌려 놓았을까? 아마 통일로 주변에서 건너온 교포형제일 것이다. 인생을 길게 바라보며 끊임없이 기도 드리는 그 정성으로 이곳에다 통일로를 다시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먼 훗날—, 저 코스모스의 오솔길을 걸어본 후에 다시 통일로에서 판문점을 지나 토성과 개성을 거쳐 해주로 달려갈 것이다.

코스모스는 서양 꽃인지 몰라도 어느 사이에 서민적이고 소탈한— 우주의 질서의식을 스스로 아는 한국인의 코스모스가 된 것이다.

호젓하고 외로운 곳에서 코스모스와 만나니 더욱 사랑스럽다. 사분사분 걸어오시는 통일의 님처럼!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해밀톤지점 ☎ : 1-385-1485
서부지점 ☎ : 243-9544

훼미리·닥터 (의사 왕운린)
(B) 968-1543 · (R) 363-9196
600 SHERBOURNE ST. #402
월~금 : 오전10시~오후7시
토 : 오전11시~오후3시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캐나다한인총연합
대한부인회바자회
일시 : 1982년11월13일(토) 상오11시~하오4시
장소 : 한인장로교회 (1183 Davenport Rd. Tor.)
품 목 : 떡종류, 된장, 고추장, 빈대떡, 밑반찬 젓갈 등등…
식 사 류 : 곰탕, 진주비빔밥(각 $3)
복 권 : 1장 $3.00
복권상품 : 1등 — 편물로 짠 이불1개 • 2등 — 흑백TV
3등 — 장미쌀 50LB • 4등~10등 — 장미쌀 25LB.
문의처 : 494-1856(양혜신)
●각 교회의 교우여러분은 나오셔서 저희 대한부인회를 도와 주시고
＊무엇이든지 갖고 오셔서 매매 하실분. 환영합니다.
캐나다한인총연합 대한부인회 회장 양혜신 외임원일동삼가
후원 : 총영사관, 한인회, 체육회, 칠성인쇄소, 한국일보사, 코리안 저널, 양로원 건립위원회, 한인신용조합, 실업인협회

그린벨트 一部완화

路邊 2km내 草地허용
보호林地도 年次개발

그린벨트(開發制限地域) 내에서의 개발제한이 일부완화된다.

정부는 15일 山地草地조성10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71년7월 그린벨트를 처음 고시한이래 일체개발을 금지해왔던 그린벨트내서 초지조성사업만은 허용할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도▲이제까지 도로변 2㎞이내 지역은 개발을 제한해왔으나 산림법시행규칙을 고쳐 초지에한해 개발을 허용하고▲산림법상 보호림지라도 개발가능지역은 연차적으로 조사, 초지개발을 이용토록 완화하는 한편▲도시공원을 제외한 公園林地에 대한 초지개발도 이용키로 했다.

그린벨트내의 초지조성은 현행법상에도 허용돼있으나 정부는 초지조성사업이전에 토지 형질변경허가등의 과정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금지시켜왔었다.

따라서 앞으로 그린벨트내서 초지조성을 허용한다는것은 이제까지 엄격히 규제해온 그린벨트내의 개발제한을 사실상 일부 완화한것으로풀이된다.

더구나 초지조성을 하려면 관리인을 두어야하고 초지조성자체가 소를기르기위한 것이므로 牛舍등 축사신축허용이 불가피해 비록 부분적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이 완화될것으로 보인다.

전국대도시주변의 그린벨트는 현재 14개지역 22개市, 39개郡, 1백86개邑面주변 5천3백97.1㎢지역에 고시돼있다.

亞太通信기구 代表 全대통령, 接見환담

全斗煥대통령은 15일하오 청와대에서 아시아·태평양通信社기구(OANA)서울회의에 참석한 각국수석대표를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사진)

이자리에는 OANA 회장인 말레이지아의 아마드·무스타파 베르나마通信社사장등 12명이 참석했으며 李振羲문공부장관이 배석했다.

나이지리아 陸軍참모총장에 勳章

全斗煥대통령은 15일상오 청와대에서 나이지리아 육군참모총장인 무하메드·이누와·우시中將을 접견하고 保國훈장 統一章을 주었다.

내년監査 7만명投入

監査院 방침

監査院은 내년 한햇동안延人員 7만명을 투입,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에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이 15일 국회에낸업무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중 국가기관에 3만5천명, 지방자치단체에 1만7천5백명, 정부투자기관에 1만5백명, 기타 단체에 7천명의 감사人力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새해 감사방향을 각종非違의 사전예방및 啓導감사, 행정의 지속성, 효율성확보, 국민편의 위주의 복무자세확립등에 두고 公職사회淨化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정부주요시책이 성과를 거두도록 감사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이 금년 1월부터 지난9월30일까지 지적한 각종 非違사례는 모두 3천2백15건으로 이가운데 22건에 대해 辨償판정, 1백21건은 징계·問責, 7백10건에 대해 是正조치, 7백68건에 대해서는 注意조치를 취했으며 이밖에 1백42건은 개선조치, 5백35건에 대해서는 통보조치를 취했다.

北傀 온건파元老 대거軟禁

統一日報 金日成 訪中실패 金正日派反擊

【東京=聯合】북괴의 金正日·吳振宇일파가 최근 부주석 金一을 비롯 온건파 원로를 대량 연금한다는등 北傀정권내부에 이변이 계속되고있는것으로 전해졌다.

東京에서 발간되는 교포일간지 統一日報는 15일 平壤내부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한때 권력중추에서 밀려난 金正日·吳振宇일파가 최근 반격을 개시했으며 金一을 비롯한 정치국원급의 온건파원로인사를 대량 연금한것같다고 보도했다.

統一日報에 따르면 金正日일파는 金日成의 中共방문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對外정책의 강경선회 對南공작의 격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統一日報는 지난8월말 咸興에서 열린 黨추진위총회를 계기로▲내부대립지양▲경제건설우선추진▲對南긴장완화등의 온건노선이 채택됐으며 金日成의 中共방문도 이같은 정책전환에 따른 경제원조요청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不實下請업체 일제調査

국회 8개常委 續開
"日의 軍備증강, 우리安保에 영향은"

국회는 15일하오 外務·內務·財務·國防·農水産·商工·保社·交通委등 8개常委를 열고 소관부처의 現況보고를 들었다.

이날 內務委는 地下鐵공사장사고에대해, 국방위는 國防部에대한 정책질의를벌였다.

國防委 尹誠敏국방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대해『日本이5개년 中期방위력 증강계획으로87년까지 6백56억달러를 투입, 陸海上및 항공自衛隊의 군사력을 증강하는것은 美國의 방위부담요구와 자유세계 제2經濟大國으로 지금까지의 소극적자세에서 적극자세로 전환하는것』이라면서 그러나 日本의 군사력증강계획이 반드시 日本의 軍國주의부활을 뜻하는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그러나 日군사력증강이 東北亞지역의 세력균형에 기여하고 이지역 주둔美군사력이 中東및 다른지역에 배치될 가능성도있어 영향력을 갖게될것으로본다』고 말했다.

尹장관은 또『北傀의 南侵은 우발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일어날수 있다』고 전제,『이는 北傀가 야간전투위주의 전쟁계획을 세우고 주로 야간에 初戰3일만에 戰勝을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기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우리도 初戰에 대비한 작전태세를 거의완비했고 야간전투훈련을 강화하는등 모든 군사체제를 야간위주로 보강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韓日간의 防衛협력은 장기적안목에서 바람직하나 교과서歪曲과 經協문제등이 해결되지않는한 실질적인 韓日방위협력이 가까운 장래에 이뤄지지않을것으로본다』고 대답했다.

尹장관은 이어『中共과 소련은 北傀의 赤化통일을 당분간 지원하지 않을것으로보나 미국의 西太平洋방위력이 약화될경우 소련이 이를 使嗾하거나 北傀가 단독남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수없다』고 말했다.

이날 金顯洙 朴敬錫(이상民正) 鄭鎬吉 金德圭 金舊植(이상民韓) 尹錫民의원(국민)등은▲日本의防衛力증강 5개년계획에 따른 軍事大國化가 우리安保에 미치는 영향▲中共의 對北傀 A5전투기제공이 東北亞에 미치는 안보상 危害여부▲韓日간의 軍事협력가능성▲中蘇和解가 韓半島주변정세에 미치는 영향▲독창적인新型미사일開發 용의▲北傀도발등 有事時 人力및 産業동원태세 확립대책등을 추궁했다.

外務委 孫在植통일원장관은 보고를 통해『통일원이 수진해왔던 평화통일기반조성에관한 연구사업은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외관계등 남북한및 국제환경변화에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화통일여건조성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라고밝혔다.

그는 또『내년에 조사연구분야에서 金正日 체제등장이후 北韓의 對內外 정치변동에 역점을두고 남북대화업무중 우리의 통일방안은 북한이 받아들일수있는 대책을종합적으로 연구할것』이라고 밝혔다.

財務委 李揆成전매청장은『담배에 있어 타르와 니코틴의 含量이 현재 市販되고있는솔의 50%정도인 마일드선을개발, 11월중에 市販하겠다』고 말하고『가격은 5백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李청장은『내년에 담배값을 올릴계획이 없지만 근본적으로 국가재정과 稅入상황등을 고려하여 담배값을 결정하기때문에 사정에따라 변경될수도 있다』고 말했다.

內務委 金聖培서울시장은 不實工事의요인이되고있는 下請업체를 일제히 조사, 과감히 정리하고 사고가 자주발생하는施工業體는 사고회수와 人命피해등 일정기준을정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수하르토 오늘來韓

수하르토인도네시아대통령이 全斗煥대통령의 초청으로 4일동안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하기위해 부인 시티·하르티나여사및 1백21명의 수행원과 함께 16일하오 3시30분 특별기편으로 來韓한다.

수하르토대통령은 訪韓기간중 오는18일 靑瓦臺에서 全대통령과 韓·인도네시아 頂上회담을 갖고 韓半島를 포함한 아시아정세및 국제정세전반과 상호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韓·인도네시아 양국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 분야에걸친 협력증진방안을논의한다.

특히 두나라 頂上은 全대통령이 제의한 太平洋頂上會談의 실현문제등 양국의 외교우호강화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양국의 기술협력및 合作投資등 경제협력증진방안을 폭넓게 협의할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하르토대통령의 訪韓은 全대통령이 지난해 6월25일부터 29일까지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한데 대한 答訪으로 全대통령의 아세안순방후 아세안지도자로서는 최초의 訪韓이다.

수하르토대통령의 이번 방한 국방문에는 위조요·니티사트로經濟調整相, 묵타르外相, 수달모노官房相등 비공식수행원 18명과 공식수행원 32명을 포함, 모두 1백21명이 수행한다.

스페인과 美國을 공식방문한후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수하르토대통령은 오는 19일 상오 離韓, 日本을 비공식방문한다.

豫決特委 구성
위원장 鄭在哲의원

국회豫算決算특별위원회는 15일상오 첫회의를열어 위원장에 鄭在哲의원(民正)을 선출하고 각 교섭단체의 추천에따라 各黨幹事에 崔洛喆(民正) 金銓圭(民韓) 金永生의원(국민)을 선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議政同友會측에 간사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기로 결정했다.

豫決委는 오는22일 올해追更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며 새해예산안은 11월3일부터 다룰 예정이다.

各黨 豫決委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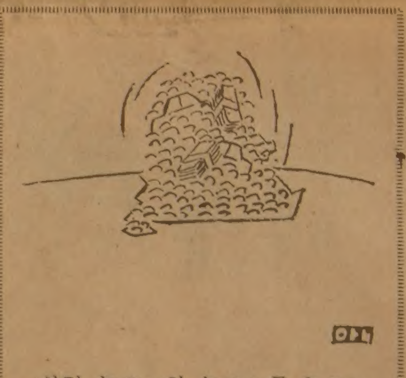
소속	성명		
民正黨(27)	鄭在哲 崔洛喆 鄭石謨 吳漢九 金重權 趙正濟 任哲淳 金潤煥 孟殷在	丁時采 郭正出 鄭宗澤 朴銓兌 裵成東 李漢東 柳根桓 南載熙 李大淳	趙尙來 尹國老 文炳良 李憲琦 朴有載 朴權欽 朴翊柱 高貴男 玄敬大
民韓黨(15)	金銓圭 朴寬用 睦堯相 申鎭洙 柳寬範	金台植 李英駿 洪思德 金彙植 金秉烈	閔炳楚 金文錫 金燦于 延濟源 金炯來
국민당(5)	金永生 姜根鎬	林圭德 曺德鉉	李成一
議政(3)	林采洪	金吉俊	白璨基

日自民黨 3者회담 결렬

【東京=宋孝彬특파원】자민당의 총재선출을 위해 스즈끼(鈴木)수상및 후꾸다(福田)前수상과 니까이도(二階堂)간사장은 15일 상오11시 수상관저에서 三者회담을 가졌으나 구체적 인물을 선정하지 못한채 거당적 지지를 받는 인사로 새총재를 조속히 추대하자는 원칙만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들은또 스즈끼수상 후계자 선출을 위해 내일까지 섭충을 계속하기로 했다.

社會漫評



사람 늘고…차 늘고…돈 늘고…

國家의象徵 法制化키로

정부는 지금까지 마련돼있지 않거나 근거가 미약한 國旗·國歌등 국가상징에 관한 법규를 제정 또는 정비함으로써 이를 體系化하기로 했다.

법제처가 15일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정비, 체계화할 대상은▲國歌나 國花▲年號에 관한 법률▲국기제작법▲국기게양법에 관한 대통령告示▲나라紋章규정▲國號및 일부 地方名과 地圖色사용에 관한 규정등이다.

地平線

'60년대 말이다. 우리나라 현대화가들이 모처럼 파리에서 대규모 작품전을 열기로하고 그 전시장을 프랑스政府와 협의했다. 당시의 주불대사 李壽榮씨(작고)가 프랑스 文化담당國務相인 앙드레·말로를 만나 파리 시내의 큰 전시장 하나를 우리 화가들을 위해 빌려 달라고 교섭했다. 그때 말로의 대답은 『李대사, 만약 한국에서 귀하가 그걸 가져와 파리에서 전시하겠다면 난 파리의 그랑·팔레를 제공해 드리겠소. 그러나…』▼결국 우리 현대화전은 파리교외의 사토(城館)를 빌어 열렸다. 하지만 이때 프랑스 知性의 서울인 말로까지도 高麗靑磁를 위해 파리의 상징적전시장을 내놓아 아깝지않아할만큼 완전히 매료되어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수 있었다. 또73년께 런던의 소더비경매장에서는 조그마한 靑磁菊花文병 한개를 9만6천달러에 팔아 한때 골동품가에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고려청자의 매력은 뭐니뭐니해도 中國人이 예부터 「高麗秘色」이라고 불러온 그 파란 빛깔에 있다. 이 파란 빛을 내는 비결은 사실 지금도 완전히 다 밝혀졌다고는 할수 없다. 다만 이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陶窯址가 때때로 발견되고 있어 우리의 先知들이 어떻게 이 신비로운 빛을 구워냈는가를 아는데 크게 도움을 줄 따름이다.▼최근엔 다시 康津郡大口面龍雲里에서 완형의 청자가마 4개가 발굴되었다. 작년에도 이 근처에서 완형의 가마 하나가 발견되었고, 그전에는 같은 面의 沙堂里에서 무너진 陶窯址를 발굴하여 史蹟 제68호로 지정해 놓았었다. 이 도요지에 대한 研究를 통해 靑磁를 굽는 방법을 추측하여 천년 비색을 재현하는 시험을 여러차례 거듭해왔다.▼지금까지는 이청자가 鐵分이 약간 함유된 胎土로 빚어졌고 1~3%의 鐵分이 섞인 長石釉를 발라 구워낸것으로 밝혀져있다. 그리고 구울때 불꽃中心部의 還元焰으로 말미암아 鐵分이 제1산화철로 바뀌면서 신비로운 푸른 색을 내게된다고 믿어져왔으나 그오묘한 색상을 아직도 그대로 재현하지는 못하고 있다.▼이번에 발굴된 가마속에서는 뜻밖에도 굴 껍질이 대량으로 발견됐다고 한다. 오래전보도에 大邱李모씨가 민간口傳을 모아 구전대로 靑磁를 구웠다는것이 있었다. 李씨가 쓴 釉藥가운데는 「長石과 해산물」이란것이 있었다. 본인은 밝히지않고있으나 口傳되었다는 「해산물」이 바로 이 굴껍질은 아닌지. 千年 신비에 한발 더 다가선것 같기만 하다.

申榮均씨 (藝總회장·韓洲興産·明寶극장代表) 5백만원

独立紀念館 건립誠金
우리의 작은精誠: 큰뜻 이루게

<15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서울市社會淨化推進協 2백56만원
大新綜合建設 金明源대표 外 2백13만원
서울숭덕국교 최종운교장 外 1백46만원
(株)韓國保安公社 崔進燁사장 外 1백20만원
보원무역(株) 박운하代表 外 1백2만원
藝總任員 70만원
大韓紡織水原工場 50만원
德富振興(株) 50만원
鍾路外國語學院 33만원
方背무지개아파트 16만원
梨泰院2洞18統주민 15만원
富川市한국공업 10만원
東大門시장 축구회 10만원

◇申榮均씨

◇申鶴鎭씨

◇崔進燁씨

▲申榮均藝總會長(韓洲興産·明寶극장대표)=5백만원 ▲서울시 社會淨化推進協議會회장 申鶴鎭씨外一同=2백56만5천원 ▲大新綜合建設(株) 대표이사 金明源씨외임직원一同=2백13만8천원 ▲서울숭덕국교(교장 최종운) 교직원및 학생(대표6년 김상수 이재령 신호식, 5년 김주원 김소야, 인솔교사 정일철) 일동(2차분)=1백46만9천2백60원 ▲(株)韓國保安公社 사장 崔進燁씨외 임직원 一同=1백20만원【소년한국접수】

◇서울숭덕국민학교 대표들

▲보원무역(株) 대표이사 박운하씨외 임직원一同=1백2만3천원 ▲藝總任員(映畵協·演劇協·美術協·演藝協·國樂協·舞踊協·寫眞協各10만원)(1차분)=70만원 ▲大韓紡織(株) 수원공장 사원一同=50만2천원【水原지사접수】▲德富振興(株) 임직원一同=50만원 ▲鍾路外國語學院=33만7천원 ▲江南區方背2洞무지개 아파트주민一同=16만6천원 ▲龍山區 梨泰院2洞18통 주민一同=15만원 ▲富川市한국공업대표 김용완씨=10만원 ▲東大門시장 동구축구회원一同=10만원【日刊스포츠접수】▲仁川市中區仁峴洞(株)中央路地下商街 임직원및 상인一同=5만원 ▲서울디혜미용학원(원장 심재연) 원아一同=5만원【소년한국접수】▲대한중공정신연합회 인천지부 김영길씨외임직원一同=3만5백원 ▲鍾路區三淸洞3통주민一同=2만6천8백원 ▲西大門區弘恩3洞188의23 정대도행씨=1만원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이 세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성경강연회

초청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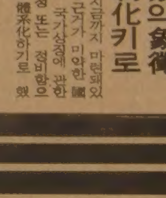
오늘날의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 그리고 사회의 이례적 사태들은 단순히 우연한 일들인가, 아니면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루어져 가고있는 한 단면을 이야기 하는가를 함께 생각하고져 한 기간을 마련하였읍니다.

인류 역사는 어디를 향하여 줄달음쳐 가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의 뒤안길에 살고 있는 우리 각자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또 어디에서, 어떻게 그 참다움을 찾을 수 있을런지…….

짧은 기간이나마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공통된 관심사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바람과 함께 여러분들을 초청하오니 참석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보람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지구는 고장난 비행체이다
인구폭발, 기상이변, 식량위기, 석유파동, 공해, 핵무기의 공포, 대지진등
●성경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창조냐? 진화냐? 내세의 유무, 이적의 가능성등
●소련의 이스라엘 침공설은 사실인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인류의 종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인생은 많은 문제를 안고있다.
생의 의미, 죽음, 내적갈등, 구원등의 많은 문제
●거듭(구원)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 멸망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과연 당신은 들림받을(휴거) 준비가 되어있는가?

교회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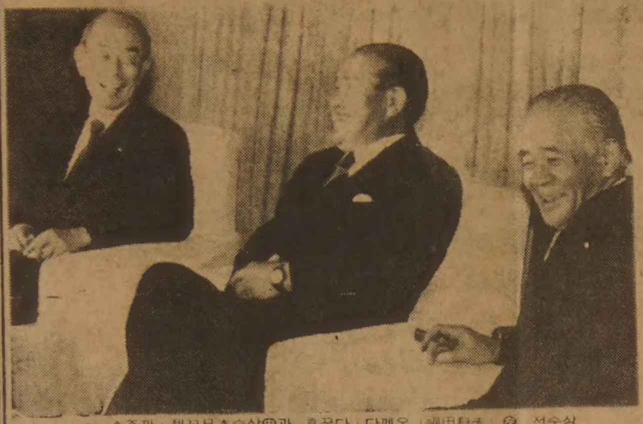


● WARDEN SUBWAY에서 68번 버스(FINCH행)를 이용하실수 있읍니다.
● 집회기간중 어린이를 돌보아 드립니다.

● 강사 : 소 천 섭 목사(국제선교협의회 사무총장)
● 일시 : 1982년10월21일(목)~26일(화). 저녁 7 시30분부터 (일요일은 오후 2 시부터)
● 장소 : 2501 WARDEN AVE. SCARBOROUGH (BRIDLEWOOD PRESBYTERIAN CHURCH. SHEPPARD와 FINCH 사이)
● 연락처 : 439－1964

기독교복음침례회토론토교회

國際焦點



스즈끼 · 젠꼬日本수상㊥과 후꾸다 다께오(福田赳夫)㊧ 전수상 니까이도 스스무(二階堂進) 간사장등 自民黨지도자들이 스즈끼 후임 문제를 논의하면서 談笑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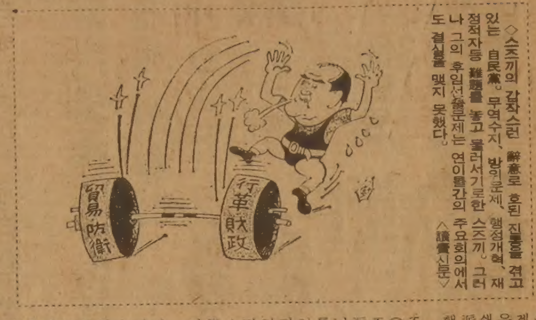
陣痛…스즈끼 後繼

黨巨物級 연쇄 會議서도 結論못지어

擧黨的人物 추천은 合意

要職안배촛점… 週末 극적타결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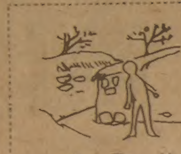
【東京=宋孝彬특파원】



◇스즈끼의 갑작스런 辭意로 혼란 진통을 겪고 있는 自民黨. 무역수지, 방위문제, 행정개혁, 재정적자등 難題를 놓고 물러서기로한 스즈끼. 그러나 그의 후임선출문제는 연이틀간의 주요회의에서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 〈讀賣신문〉

메아리

순라골



金聖佑 〈編輯委員〉

美에 샘미사일機密 제공

베긴約束 對美관계改善 희망

【텔아비브UPI=聯】

波시위1명 絕命

群衆 복수외쳐

【바르샤바 AP UPI=聯】

蘇、對西유럽 새戰略 실험

戰爭나면 核基地유린 겨냥

나토사령관 警告

【워싱턴AP=聯】

美·印尼 不和해소

駐인니美대사 아그레망拒否로 서먹

홀드리지氏 任命으로 깨끗하게씻어

◇존·홀드리지

【林鍾乾기자】

美極東정책 論難

홀드리지 전보로

【워싱턴=聯】

레이건아들 失業수당받아

조프리·발레團서 해고당한후

海外토픽

【뉴욕=聯】

全裸 오토바이疾走

★水泳하는사이 옷 도난당해

◇올구나무 自轉車

이탈리아의 카르로·제가라씨가

【키스톤=聯】

日여고생 姙娠급증

★지난14년간 4倍나

【가나자와=AP】

◇母親추도미사나온 스테파니公主

모나코의 스테파니公主가 얼마전 승용차에 함께 탔다가 불의의 사고로 여읜 어머니 그레이스王妃의 추도미사에 14일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내고 주위의 위로를 받고있다. 【니스14일AP합=聯】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액자집의 전당

◉ METAL FRAME — 30% Off
◉ CUSTOM FRAMING — 35% Off
◉ GLASS & MAT BOARDS — 30% Off

※ 지금 현재 수천종류가 진열되어 있는 액자에 대해서는 1개를 사시면 1개는 무료로 드리고 있읍니다.

NEW

저희 액자회사에서는 이번에 새로이 동양화부를 설치하여 표구 및 한국액자를 취급하게 되었읍니다.

그동안 불편한점이 많았던 배접과 표구 이제는 많은 종류의 천이 도착 하였아오니 일차 왕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조혜숙 조성호 배.

PICTURE FRAME WAREHOUSES

32A REXDALE BLVD. (at Islington Ave.) ☎ : 746—2120

日, 여학생들 成形手術 한창

취직을 하려면 우선 예쁘게 보이자

不況여파 新規채용도 좁은문 4對1 경쟁

거의 쌍거풀·큰눈 만들기 "가슴 크게 해달라" 주문도

특파원노트

살랑바람이부는 가을은 일본에서는 취직의 계절이다. 천고마비의 가을취직전선을 앞두고 여학생들은 성형수술을위해 한창 바쁘다.

세계적 불황으로 일본도경기가 밑으로 뚝 떨어졌고 대기업들도 합리화경영을 내세워 감원을하는바람에 신입사원채용이 제한되는등 취직의문은 한층 좁아졌다.

게다가 여학생을 채용하는기업은 더욱 적어졌다. 이좁은문을 뚫기위해 여학생들은『우선 얼굴을 예쁘게 만들자』는 생각에서 東京에서이름난 성형외과인 주우진(十仁)병원 (원장 梅澤文雄)등으로 몰려들고 있다.

우메자와 (梅澤)원장은 7월에서 9월까지 취직면접시험을 앞두고 여학생 손님이 월평균 50%가 늘어 1천3백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한정된 병원의수용능력때문에 오는손님을 다 받을수없는 형편이라 즐거운 비명이다.

이렇듯 여학생들의 성형수술이 부쩍 늘어난것은 72년 제1차 오일쇼크이후 처음이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여학생들의 성형인구는 더욱많아진다는것이 병원측의 설명.

금년 여학생의 채용예정인원은 작년보다 61·7%가준 6만3천명가량으로 보인다. 이에비해 취직희망자는 여대생 6만3천명과 단기여자대학(우리나라초급대학해당) 12만4천명등 모두 18만4천명에다 이미 졸업하고 취직을 못한 여학생까지 포함하면 30만명이 되니 약 4對1의 경쟁을 보이고 있는셈.

이 치열한 경쟁을 뚫기위해 여학생들은 우선 성형외과부터 찾아가고 있는 형편이다.

성형부위는 주로 쌍꺼풀과 큰눈 만들기가 제일 많고 그다음이 콧날 높이기의 순이며 스튜어디스나 여행사를희망하는 여학생은 가슴을 크게 해달라고 주문 해오고 있다.

출신학교는 사립명문대학인 게이오(慶應) 와세다(早稻田)를 비롯하여 東北대학 九州대학등 지방대학도 들어있어 거의 전국적인 규모로 퍼져있으며 제일 엘리트코스라는 東京대학출신 여학생도 심심치않게 끼여 있다.

수술비는 값이 제일싼 쌍꺼풀수술이 20만엔(한화 60만원정도)이고 대체로 30만엔 내외.

수술비용은 부모들로부터 받아내는것 보다는 학생들스스로가 아르바이트를통해 충당하는게 거의 대부분이다.

우메자와 원장은 여학생들이 성형수술을 받으러 병원을 찾을때 모습도 옛날과 달리 전혀 주저하지않고 미장원찾는것처럼 가벼운 기분으로 당당하다고 말했다.

이들 여학생은 전문가 뺨치도록 자기얼굴의 단점을정확히알아 어느부분을 어떻게 고쳐달라고 요청해와 전문의사를 당혹하게 만들기도 한다는것.

작년여름 [illegible] 은행에 취직한 직장여성은『성형수술을한뒤 성격도 명랑해지고 활달해져 모든일에 자신감을 갖게됐다』고 털어놓고 있다.

여성전문가인 야마사끼(山崎明子) 여사는『내가 어렸을때 부모에게서 받은얼굴을 성형한다는것은 생각해볼수도 없었으나 요즘 여학생들은 얼굴을 떡주무르듯 마음대로 빚어 예쁘게만 하려하고 있으며 이용할수 있는것은 모두다 이용하려들고있다』고 지적했다.

야마사끼여사는『남성우위사회에서 남성들이 여성들의 내면보다 외면인 美·醜에 더 가치를 두기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말하고있다.

일본직장에는 바야흐로 生花가 아닌 성형수술로 치장한 造花로 가득차게 됐다. 【東京=宋孝彬특파원】

◇장난인줄 알았더니… 정말 권총을 쏘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교 밴 나이스의 한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한 남자가 길 건너편에 있는 두사람에게 욕설을하면서 지팡이를 휘두른 것이 사건의 발단. 길건너의 두사람은 차를타고 U턴을 해서 주차장으로 건너 왔다. 지팡이를 휘두르던 남자가 가까이다가왔고 차에서 내린 두사람은 그에게 마구 욕설을퍼부었다. 마침 이근처를 지나가던 사진기자가 습관처럼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렌즈안으로 욕을하던 두사람중 하나가 권총을겨누고있는 모습이 들어왔다(사진上). 다음순간, 왼쪽의 지팡이를든남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어깨에서 피가 흘렀다. 범인(오른편 흰셔츠)은 총을든손을 이번엔 사진기자쪽으로 돌렸으나 욕설만퍼붓고 차에뛰어올라 주차해놓은 다른차 4대를 들이받으며 도주했다. 얼마후 이들은 자수했는데 우연히 사진을찍다가 목숨을 잃을뻔한 데일리·뉴스紙의 메일리스기자는『진땀나는 경험이었으나 이런일이생기면 또 카메라를 꺼내게될것』이라고 말했다. 【UPI】

核戰 가장 두려워하고 외국사건 介入도 反對

美「청소년 우수학생會議」에 비친 10代의「意識」

미국의 10대청소년들은 미국이 핵전쟁에 휘말리게 되는것을 가장두려워하고있다.

최근 미국 인디애나 블루밍턴에서 열린 제99회 연례청소년우수학생회의에 참석한 3천4백여명의 학생대표중 80%는 경제불황으로 자신의 부모가 해를 입고있다고 대답했으나 74%는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탠퍼드의 학부형단체에서 이들 학생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 78%가 핵전쟁발발 가능성을 믿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회를 주재한 「주니어·어치브먼트」는 미국 37개주와 19개외국의 젊은이들을 위한 경제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가장오래되고 큰 규모의 비영리단체.

이 단체의 목적인 자본주의경제질서안에서 실용적이고 사실적인 교육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것.

이외에 많은학생들이 관심을 둔 문제는 실업자에게 직업을 보장하는 문제, 관세인상, 외국원조중단, 戰爭등 외국사건에의 개입회피등이었다.

한예로 플로리다써 마이애미에서 온 밀리과·애버리(17)는『국외사건에 개입하기전 국내문제에 먼저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한다」고말했다.

켄터키써 메디슨빌에서 온 스티브·클라스(17)는『미국은 공산주의국가들과 친구가 돼야하며 세계평화를위해 일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런가하면 브리지트·존스(17)는『정치활동에 여성들이 더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되면 많은 문제를 쉽게 그리고 덜 난폭하게 해결할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만약에 대통령이된다면 무엇을 하겠느냐는 물음에 미시시피써출신의 스타리에·그린(18)은『세계평화를 위해 힘쓰겠으며 금리를 내려 더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가질 기회를 마련하겠다」고말했다.

메릴랜드써출신의 조디·부스(18)는『이나라를 앞으로 끌어갈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문제에 중점을 두겠다」고 답변했다. 오하이오써에서 온 캐시·카우리스(16)는『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도록 하겠다』고도했다.

이들 남녀학생들의 71%는 현재 사업에 성공한 남성들 만큼 여성들도 많은 기회를 갖고있다고 인정했다.

중학교의 性교육 프로그램은 成功

한편 볼티모市에서 10대 소녀들의 임신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시중진료소의 피임기구무료판매와 시립학교안에서중학교1학년여학생들에게 성교육상담을 실시해온 한프로그램이 지난3년간 큰성과를 올린것으로 나타났다.

존스·홉킨스병원의 협조아래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이병원 소아과의사자네트·하디박사는『사춘기소녀들의 임신예방에 이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다』고말했다.

그는 중1학생의 부모가운데 92%가 60만달러의비용이드는 이 프로그램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프로그램의 담당자의한사람인 로잘리 스트리트여사는『우리는 절제를 가르치고 예방에 관해 대화를 나눈다. 우리는 풍기문란을 가르치는게아니다』고강조했다.

이 프로그램의 추진자가운데한사람인 로리·자빈박사는『중1학생들이 피임기구를 가질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지만 충격을 받진 않고 있다』고 밝히고『이는 도시와 농촌 전지역에 걸쳐있는 사회체제내의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UPI】

◇중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이 피임기구를 갖고다니는 미국사회. 그러나 미국청소년들은 핵전쟁을 걱정하는 어엿함이 있다.

世界의 社会面

離婚率 늘어나는 프랑스

여성의 경제적自立이 主因

직장여성이 主婦보다 4倍나 높아

보수적인 프랑스사회가 점차 진보적인 경향을 띰에 따라 지난 20년간 프랑스에서는 이혼율이 크게 늘고있다.

최근 프랑스보험협회가 조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이혼한 부부는 10만쌍으로 지난 65년의 3만5천쌍에비해 거의 3배가량 증가했다.

이같이 이혼증가추세의 주요 원인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강해지고 있기때문인데 실제로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가정에 들어앉은 주부보다 이혼율이 4배가량 높다.

이밖에도 결혼이란 남녀가 쉽게 만나 인연을 맺었다가 쉽게 헤어질수있는 단순한 남녀간의 계약이라는 사고방식이 팽배해지고있는 풍조도 이혼을 부채질하는 이유중의 하나로 지적되고있다.

지난해 법무성의 한연구보고서는『부부들은 결혼이 실생활을 반영해야만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있는데다가 부부상호간의 독립성이 증가되어 이혼이 보다 쉬워졌기때문에 부부가 참을수 없는 불화를 계속 견디어가기보다는 차라리 서로헤어지는편이 낫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번 보험협회보고서는 결혼에대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性에대한 정부당국의 개방적인 태도도 이혼증가의 원인이 됐다고지적하고있다.

한편 보험협회보고서는 1백만명가량의 남녀가 정식결혼도 하지않고 동거생활을하고있음을 밝히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혼하기 위해서는 부부간 합의하는 방법외에도 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결함을 발견하면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이밖에도 부부간에 어떤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부부중 어느한쪽이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하지않아도 판사에게 진상에 관한 판결을 요청함으로써 이혼하는 방법도있다. 【파리=합】

磁石신발로 高血壓고친다

中共서개발 3백40명실험 82%효과

피로·현기증·두통도 말끔히 血液순환 활발 부작용없어

『침술의 신비한효능과 인삼의 약효를 세계에 널리 알린 중공에서 이번에는고혈압치료용 자석신발이 개발됐다.

유진이라는 53세의 중공군장교는 약2천년전의 중국漢方기록에 적힌『자석의 신비한 효능』으로 고혈압·신경성피로·현기증·악몽·불면증·耳鳴·기억상실·두통·식욕부진등 증세를 말끔히 해소하게 되었다.

그는 4달전 그의 주치의로부터『자석신발을 신으라』는 처방을 받고 그대로 따른후 이제는 대부분의 증세가 치유됐다.

그는 최고혈압1백70、최저혈압 1백10이던것이 자석신발을 신은후 각각 1백14－74로 떨어졌다고 이신발의 개발 생산에 관여하고있는 기사인 유안·충후아씨는 말하고 있다.

유안씨에 따르면 자석은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서 약물사용과는 달리 아무부작용없이 혈압을 내릴수있다고 한다.

中共의「3월8일」신발공장은 지난달부터 자석신발생산을 시작, 현재까지모양과 색깔에 따라 20종 2만켤레를 생산했다.

이신발은 천으로만든 보통신발과 똑같은 모양이나 다만 신발바닥에 2~4개의 소형자석을 집어넣은점이 다르다.

이 자석들은 자석자극에 가장 민감한 발부위에 위치해 있으며 걸을때마다마찰을 일으켜 전류를 발생하는데 이전류는 중추신경계통에 전달된다고 한다.

그러나 신발을 신은 본인은 발가락에 전류가 발생한 것을 느끼지못한다.

이같은 전기충격은 다시 전류에 가장 저항이 약한 신체부위에 전달된다고 유안씨는 말한다.

그는『전기충격은 신경계통에 작용해서 고통을없애고 신체를 편안하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전국의 12개병원에서 3백4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한 결과 불과 며칠만에 대단한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환자의 82·71%가 좋은 결과를 보였고 나머지는 효과가없었다고말했다.

실험에 참여한 한의사는 실험대상환자중 85명이 현기증 증세를, 또 6~7명이 구토 또는 불면증세를 보이는등 부작용이 나타났으나 이같은 경미한 부작용증세도 환자들이 이신발을 신는 횟수를 줄임으로써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나 한 신문보도에 따르면 중공의사들은 이자석신발평가에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사들은 특히 임산부등에 심각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이 자석신발이 자가처방 돼서는 안된다고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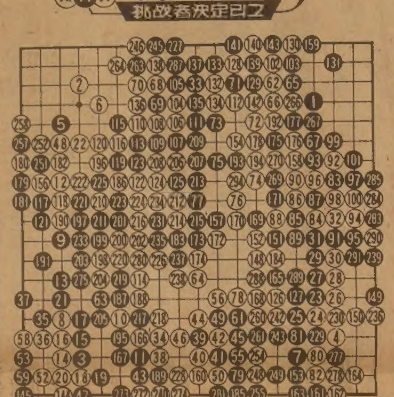
이 자석신발은 아직 시판되지는 않고있지만 가격은 약5·5달러 (약 4천원) 정도가 될것이라고 한다. 【北京=AP】

第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局 總譜 295手完 (각5시간·덤5집반)

白(6段) 徐能旭〈1敗〉

黑(4段) 姜 勳〈1勝〉



姜 4段 서전장식

姜4단은 행운의 스타트를 끊었다. 지난期에 모처럼 승승장구하다가 끝무렵 좌절된일이 새삼 생각나지만올해는 물론 추호의 차질도없이 밀고나가리라 한번 기대해 보고싶다.

한편 徐6단은 첫판을 실패하여(그것도 라이벌에게) 사기가 꺾일것 같지만 원래 쌀쌀한 성품이라서 앞으로의 대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고 또 그래야 마땅하므로 역시 기대를 걸고싶다. 앞으로 남은 여정은 멀기만 하기때문이다.

이바둑은 좌하귀에 白14이하의 폭수혐이 생겼다. 그리고 우하귀 黑23이하 白32까지 실리와 세력으로 형세가 확실히 갈라졌는데 黑33이 방향착오. 이수로 39 근처에 지켜야 했는데 白34를 허용하고 좌하귀는 잡았으나 대신 黑의하변이 무너져 白이 우위에 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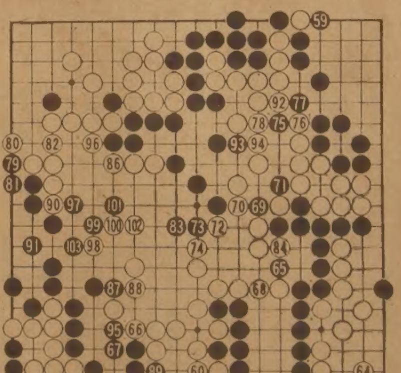
그러나 우변접충에서 白84、86이 이상하여 黑95로白집이 줄자 대세는 막상막하. 계가바둑이었다가마지막으로 白132、140등 의문수가 연발하여 승기를놓치고말았다. 51…39。54…42。57…39。60…42。146…140。147…128。155…143。232…210。241…225。244…210。247…225。250…210。253…225。256…210。259…225。262…210。265…225。268…210。271…225。276…210。279…225。282…39。286…87。292…283。293…10。295…210。【一凡】

第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局第10譜 159~203 (각5시간·덤5집반)

白(6段) 徐 能 旭

黑(4段) 姜 勳



白、3집반憤敗

曺薰鉉·徐奉洙에는 못미치지만 徐6단과 姜4단 역시 청소년기예파의 대표적라이벌로 상당기간 인기를 모으고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실력이 일취월장하며 최정상에 육박하는 중이다. 徐6단은 最高位를 제한 나머지 각타이틀전본선에 고정멤버로 활약하는중이며 姜4단은 王位戰 외의 전타이틀전에서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다. 과거 覇王戰에서 曺薰鉉9단에 두차례나도전하여비록연패의고배는마셨지만『언젠가 꼭!』하고벼르는그의불굴의 투혼은 날로 두터움을 더해간다고한다.

어쨌거나 바둑팬들이 徐6단과 姜4단에 촛점을 맞춰놓고서 열띤 응원을 보내는 것도 알만한 일이다.

이들이 나란히 名人戰본선에 오른 것은 제10기때 (徐가 4단、姜이 3단) 부터이며 그간의 대전성적은 3대1. 姜4단이 줄곧 3패를 하다가 작년에 一鍼을 가했고 이제 이바둑을 승리하면 3대2、막상막하의 전적인데 지금은 아무래도 徐6단이 쫓기는 입장에 서있는것 같다.

그것은 그렇고 전보에서 姜4단은 상변패를 黑59로 해소하여 승리를 굳혔다.

徐6단은 끝내기로 역전을 꾀했으나 때가 늦었고 겸하여 姜4단의 견실한 마무리로 인해 白3집반패의 결과를 초래했다. 본보 黑103이하는 ·종보로 미루거니와 白의분패라 할밖에없다. 【一凡】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42〉

朴婉緖 作 / 金光培 畵

안개속의 집 ⑨

『큰소리 치지말아요』당신은 참을수 있어요』수지가 주문을 외듯이 신들린 목소리로 말했다.

『바른 말은 누구든지 듣기 싫어하지만 당신은 유별나더라. 그렇게 늘 바른말만 하고 사는건 아니잖아요. 이왕 바른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만 하지요. 오늘의 주제가 정치적이니까 하나만 더 정치적인 것의 예를 들께요』

『뭔기 하다니까』

『천기사 말예요. 천기사가 당신의 바둑친구노릇을 하는거 이것도 천기사로선 상당히 정치적인 술수일 걸요』

『뭐 눈엔 뭐 밖에 안보인다더니, 당신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정떨어지게 굴거야?』

『당신이 그렇게 [illegible]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할말은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당신하고 천기사하고의 관계는 천기사만 일방적으로 정치적이기 때문이에요. 천기사는 상전의 바둑비위를 맞춤으로써 상전하고 마치 친구처럼 굴수가 있지만 당신은 뭐예요? 우리 부부가 서로 정치적인건 서로 대등하게 이용하는 거니까 상관 없지만 천기사한테는 당신이 일방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단 말예요. 정신 좀 차려요. 당신도 한번 정치적으로 놀아보라는 건 아니예요. 까지 천기사 따위를 집으로 끌어들이지말고 당신이 천기사가 되어 당신 상전네 집에 처들어가 보란 말예요. 상전을 꺾어내도 좋구요. 당신이라고 골프 못치란 법 있어요. 상전이 좋아하는 놀이를 통해 우선 상전과 대등해지는 기막힌 술수는 천기사한테 배울만하잖아요?』

『그 상전소리 좀 집어치지 못해? 나한테 상전이 어디있어? 나는 하인이 아냐』

『상전소리는 그럼 취소하죠. 대신 상사라고해도 좋고 출세를위해 잡을수있는 끄나풀이라고 해도 좋아요』

『제발 그만 그만해 두지 못해』

기훈은 버럭 악을 쓰는것만 갖고는 모자라 밤새 도록 나불댈 것 같은 수지의 얇고 생기있는 입술을 자신의 입으로 틀어막았다.

『짐승, 짐승』

수지가 버둥대며 신음했다. 버둥대는 풍만한 살집이 그의 내부에 도사린 증오를 참을수없이 끓어오르게했다. 이윽고 그는 더 참다가는 자신이 폭발할것 같아 거의 살의에 가까운 증오의 날(刃)을 그녀에게 꽂았다.

언제부터일까? 증오와 욕정을 구별할수 없게 된것은.

기훈은 불쾌한 의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아내를 밀어냈다. 그가 증오의 날로 상해한 건 아내가 아니라 자기자신이었던 것처럼 그는 쉽사리 무너지고 아내는 이제 막 가빠오는 숨결을 스스로 달래려는듯 차갑게 꼿꼿 있었다.

그는 [illegible] 깊이 잠들진 못했다. 자신의 일부가 빠져나가 외화에서 본 잘 생기고 냉혹한 서양남자가 되어 아내를 죽이려고 떠나고 있었다.

안돼, 그 여자는 그렇게 쉽사리 죽을 여자가 아니야. 그는 이렇게 길 떠나는 자신을 붙잡기위해 깜짝깜짝 깨어나야 했다.

그런 그의 숙면을 방해하는 것이 수지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작은코웃음소리를 냈다. 문득 웃음을 그치더니 침대머리의 갓스탠드를 켜고 두꺼운 책을 펼쳐들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 김미리자
BAND－기타 : 신상철
올겐 : 함효상
드럼 : 권순근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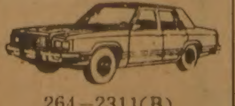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밴트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의문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하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교또 레스트랑

토, 일 스페샬 브런치 $3.50
● 수～일 11 : 30A.M.－2 : 30
5 : 30P.M.－10 : 00P.M.
● 월, 화 CLOSED
5304 YONGE ST. (at FINCH) 222－1621
KOTO JAPANESE RESTAURANT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장의사〉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황
536－6250 호세환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부패公職者구속 千百63명

올들어 8월까지 暴力사범은 14萬7千명

法務部자료

올들어 8월말현재 전국각 지검및 지청에입건된 공직부패사범은 모두 1천1백63명이며 학원소요와관련돼 입건된 사람은 1백23명인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15일 국회에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또 이기간동안 입건된 범법주변부조리사범은 5백84명이며 조직폭력사범 6천8백50명 도박사범이 1만9천5백13명등으로 입건된 5대고질적사회악사범은 모두 2만8천2백33명인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료에 의하면 또 이기간동안 발생한 폭력사범은 14만7천6백17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7·2%가 증가, 범죄평균증가율 9·2%를 훨씬 상회하는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도범죄역시 5만6천1백54건으로 지난해보다 23·6%가 증가했다.

한편 금년들어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은 1백66개국에서 모두 65만7천2백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일본이 35만8천4백명으로 54·4%, 미국 15%, 자유중국 10·6%, 홍콩 2·4%, 영국 1·6%, 서독 1·3%, 기타 14·7%등으로 집계됐다.

또 내국인 출국자수는 모두 32만9천9백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7%증가했는데 행선지는 일본이 27·9%, 사우디아라비아 24·2%, 미국 18·7%, 홍콩 3·3%, 리비아 3·1%, 기타 22·8%등이다.

목적별로는 취업 43·4% 상용 22·4% 방문시찰 10·7% 이민 6·7% 공무 0·8% 기타 16%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경자료에 따르면 통금해제후 9개월동안 서울시내에서는 모두 14만4천1백9건의 강력 폭력 절도등 각종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13만1천3백66건에 비해 8%가 늘어난 숫자다.

拉北귀환 馬山號선원 會見

"勞組침투·反美지령도

하루11시간 思想교육·食糧難극심"

제5馬山호(선장洪俊源)선원35명이 15일상오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억류중에 본 북한의 실상들을 낱낱이 폭로했다.

이날 회견에서 洪俊源선장은 지난7월13일 낮12시5분께 북괴경비정의 기습을받고 끌려갔을당시 馬山호는 공해상인 鬱陵島 동북쪽 1백70마일 해상에서 어로작업중이었으나 淸津항에 끌려간뒤 「북한 경제수역을 침범했다」는 시인서를 강제로 썼다고 말했다.

洪선장은 또 피납선원모두가 처음 13일간은 淸津에 억류됐다가 7월26일 元山으로 옮겨 노년층은 元山제여관에, 청년층은 송도여관에 분리수용돼 하루 11시간씩 사상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귀환선원 金鍾燮씨(42)는 북괴지도원이 平壤견학을 보여주고 감상문을 쓰라고하기에 「어느것하나 남한보다 나은것이없다」고 했더니 북괴지도원이 「북조선은 군수공업에 치중하다보니 경공업은 남한보다 20년가량뒤져 있는 실정」이라고 실토하고 「앞으로는 경제에 치중할테니 10년내에 남한을 따라잡을수있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金씨는 이어 북한 곳곳에는 「쌀은 공산주의다」란 표지가 붙어 있고 억류기간중 조와 콩을 섞은 잡곡밥과 죽이 자주 나와 북한의 식량사정이 심각함을알았다고했다.

그는 또 平壤 「2·8문화회관」을 견학할때 회관지배인이 「서해안에 30만정보의 간척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공사가 끝나면 강냉이 밥을 안 먹어도 될것」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억류중 북에 있는 동생태호(65)와 아들 동연씨(35)등 가족을 만나고 왔다는 어부 邊泰勳씨(67)는 아들이 헤어지면서 「북에 있는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남쪽에가면 북에서 배우고 본것을 잘선전하시오」라고 말할때 더욱 가슴이 아팠다고 밝혔다.

邊씨는 平壤견학때 안내원은 「전쟁이나도 平壤 시민은 1백50m 땅속에 지하철대피소가 있어서 안전하다」면서 「인민경제가 발전하는 3～4년내 통일을 달성한다」고 큰소리를 쳤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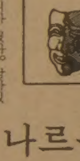
또다른 귀환어부 朴永男씨(40)와 朴鎬道씨(27)는 송환에앞서 북괴지도원들로부터 남한에돌아가면 광산·부두등에 취업, 임금인상투쟁을 벌이면서 반미운동으로 발전시키라는 지령을받았다고 털어놨다.

◇회견장에 나온 귀환선원들. 「조국과 가족의 품에 다시 돌아오니 한이 없다」면서 눈물지었다.

빨간 모자

東大門시장 지게벌이 金師洪씨

恨과 꿈을 나르는 「개미庶民」



서울동대문시장의 지게꾼 金師洪씨(54·사진)는 매일 「恨」과 꿈을지어나른다. 恨은 못배운 것이고 꿈은 13년째 일하는 동대문시장에 조그마한 점포를 마련하는 일이다.

恨이야 그나이에 어쩔수없는 일이라지만 꿈은 한때 거의 실현단계까지 이르렀었다. 그러나 이꿈은 불경기에다 동대문에 있던 고속버스터미널이 강남으로 이사가는 바람에 벌이가 줄어 신기루처럼 멀어져갔다.

金씨는 지난70년 原州에서 무작정상경, 龍山 청과물시장에서 과일행상을하다 몇푼되지않은자금을 전부날리고 빈털터리가 됐다. 남아있는것은 튼튼한 육신뿐이자 별수없이 지게를지었다. 처음엔 지게가등에 붙지않아 고생도많이했다.

그래도 경기가 괜찮았기 때문인지 하루 1만원정도 수입을 올리는 날도 더러 있었고 지게꾼생활 10년째인 지난79년엔 대지30평에 건평17평의 집도 마련할수 있었다. 집을 마련하고 나니 「동대문시장점포주인」의 꿈도 이룰수 있다싶어 힘이 났다.

그러나 꿈은 역시 꿈이었다. 요즘은 먹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인지 동료들의 숫자만 늘어난다. 하나도 자랑할 것 없는 「최고참」이 돼버린 그의 주위에는 2백여명의 동료들이 모여 있다.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 이름을 전부 욀수 없어 모두 번호가 붙어있는 빨간모자를 쓰고있다. 金씨는 15번의 모자를 쓰고있다. 金씨는 「師洪」이란 이름을 잊은지 오래고, 오히려 「빨간모자 15번」하고 부르는 소리가 더 반갑다. 그 소리는바로 손님이 부르는 소리인 것이다.

그러나 그소리도 요즘은 듣기가 힘들어졌다. 더구나 아들녀석이 아버지가 지게꾼이라고 부끄러워하는게 몹시 마음에 걸린다.

『지게꾼인생이라 사회에선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래도 동료들간에는 깊은 정이 오간다』고 말하는 그는 열심히 살아가는 영세서민들에게도 정부에서 더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한다. 의료보험혜택을 받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자와 만나 잠시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도 그의 눈동자는 이리저리 쉴사이가 없다. 「빨간모자 15번」을 찾을 사람을 찾는 그의 눈동자에 고된 서민의 애환이 잠겨있다. 【趙明九기자】

정든땅팔고 江南간 中高校

重課稅에 깜짝

承認땐 말없다가 최고2억

淑明·貞信·東國·創人·輔仁·英坡·千戶등 7개校

정부의 수도권인구 소산정책에따라 학교를 강남지역으로옮긴 일부중고등 학교가 최근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액의 세금고지서를받고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이처럼 딱한처지에 놓여있는 학교는 淑明, 創人, 貞信, 輔仁, 東國, 英坡, 千戶등 7개 학교법인인데 적게는 4백40만원에서 많게는 2억5천8백88만원이나 부과됐다.

이들 학교재단들은 납부기일을 넘길경우 가산세가 붙고 내지못할경우에는 압류까지 당할 위기에 처해있는데다 재원을 마련키위해 학교재산을 매각처분할수도 없어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할입장이다.

이에대해학교법인측은3～4년전 학교를 옮길당시감독청인문교부등에학교이전계획승인을신청할때도자산사용부문에서 세금문제에대해 한동의 지적을 받지 않았고 관할세무서에도 부동산 매각분에 대한 법인결산서를 제출했으나 아무런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 재원도 없는 지금와서 거액을 세금으로내라는 것은 학교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 정부의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7개 사립학교법인들은 지난78년부터 정부의 강력한 종용을 받아들여 각각 도심의 교지와 교사를 처분하고 강남지역으로 이전했는데 이들학교가 이전할때 정부당국으로부터받은 세제상의 혜택은 하나도없었다.

淑明여중·고의 학교법인인 淑明학원의경우 지난78년 11월 당시壽松洞에있는 교지와 교사를 매각, 현재교사로 이전했다.

교지등의 매각대금 전액은 문교부와 서울시교위의 감독하에교지확보, 교사신축, 교육용기본재산 조성등에 모두썼다.

당시 재단측은 법인세법의 특별부과세조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양도소득은 면세이므로 세금문제는 생각조차 안했다는것.

그러나 만4년이 가까운 지난9월 국세청으로부터 1억8천3백9만6천6백56원의 방위세 부과통지를 받았다.

淑明학원 관계자는 「만약 당시에 양도소득세는 면제받지만 방위세가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액수만큼의 돈을 미리준비 해뒀을것」이라고 말하면서 「방위세의 중요함은 알고있지만 재원이없는 지금에와서 거액의 세금을마련하는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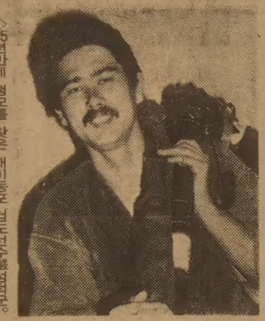
東北중·고등학교 (79년9월 獎忠洞서이전)를 운영하는 創人학원은 2억5천8백88만8천여원, 貞信여중·고 (78년1월 연지洞서이전)의 貞信학원은 7천4백55만여원, 輔仁중·상고의 輔仁학원은 5백82만여원, 東國학원은 4천4백19만여원, 英坡학원은 8천4백61만여원, 千戶학원은 4백40만여원의 방위세가 부과됐다.

고지서를 발부한 학교법인측은 학교재산을 교육사업외에는 팔수도없는 형편인데다더구나 사립학교법인재정의 영세성때문에 학교운영비도 모자라는 형편이어서 속수무책이라고 호소하고있다.

이에대해 국세청당국자는 뒤늦게 방위세를 부과한것은 세원포착이 늦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세법상으로도 하자가없고 따라서 면제나 구제방법이 없다」고 밝히고있다.

한편 문교부는 「재단의 영세성때문에 많은 사학이 국고보조를 받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따라 강남으로 이전한 점을 봐서도 이들학교에대한 세금면제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방위세는 소득액 5억원이하인경우는 소득액의20% 그이상은 25%인데 법인세가면제되는경우는 당해세액의 50%를가산하게돼 결국 30%의 세금을 물게돼있다. 【李鍾九기자】



◇25년만에 생모를 찾은 재미동포 검도선수嚴성덕군.

어머니나라서 꿈같은 再會

體典참가 在美동포 검도選手 嚴성덕군 生母와

2살때 입양 27歲의 美有力紙기자

立證근거서류없으나 "틀림없는母子"

제63회 전국체전에 참가하고있는 在美동포팀 검도선수 嚴성덕군(27·미국명 데이비드·벤·슈터)이 25년만에 생모를 찾았다.

혹시나하는 실낱같은 기대를안고 이번체전에 참가한 嚴군은 너무도쉽게 이루어진 꿈같은현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嚴군은 체전입장식때부터 특이한 외모때문에 많은사람들의 눈길을 모으던 백인혼혈아. 2살때인 지난57년 미국으로입양됐다.

그가 25년만에 체전대표선수가돼 어머니나라를 찾은데는 어머니를 찾으려는희망이 서려있었다.

그가 생모를 찾는다는소식이 보도되자 그날로 大邱에 산다는 嚴在淑씨(51)가 자신이 생모라며 달려왔다. 세월이 흐를수록 아들을 남의 나라에 보낸 일이 후회스럽고 괴로웠다는 嚴씨는 14일상오 釜谷온천서 嚴군을 대면하는 순간 너무나도 자기를 닮은 얼굴에 왈칵 눈물을 쏟았다.

좁다란 양미간과 오똑한 얼굴은 누가봐도 한눈에모자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이들의 모자관계를 입증해줄만한 근거서류가 없는게 이들의 안타까움이다.

嚴군이 갖고있는 두살때의 여권사진과 嚴씨가 가져온 한살때 아들의사진은 육안으로는 같은 사람이라고 단언할수가없다. 나귀처럼 치켜올라간 嚴군의 귀만이 어렴풋이 동일인물임을 증해준다.

아직도 의문점은 많다. 嚴이라는 회성이 일치하나 이름이다르고 나이는 같지만 생일이 다르다.

嚴씨는 당시 美육군대위로 議政府8군산하 부대에서 근무하던 남편이 갑자기 병사해 자신의 성을 따 嚴준이란 이름으로 홀트양자회를 통해 미국에 입양시켰다고 한다. 그때 양자회측이 편의상 이름과 생일을 바꾸어 입양되었을 수도 있다는게 嚴씨의 주장.

嚴씨는 아들을 입양보낸 게추운겨울이라고르텐바지를 사입혀 보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嚴군의 여권에 기재된 출국일자도 3월3일로 시기상 거의 일치하고 있다.

또아들의 양모가 될 사람이 교육자라는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현재嚴군의양모는 LA에서 교편을 잡고있다는말에 嚴씨는 그가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게했다.

嚴군은 LA로 입양된후줄곧 그곳서 성장하며고교를 졸업하고 현재미국의 유력지 LA타임즈紙 경제면 편집자로 일하고있다.

나이가들면서 점차 자기의 핏줄을 찾아야겠다는 욕망을 갖게됐다는 嚴군은 미국의 양부모도 어렸을때의 사진을내주고 귀국전에는 홀트양자회에 친히 전화를걸어 이들의 모자상봉을 도와주도록 당부했다는 것.

지금 이들의 모자관계를 확인해줄수 있는것은 홀트양자회의 입양당시 서류를 찾는길 뿐이다. 【馬山=俞炳根기자】

釜山 개인택시사건

가짜經歷증명 1장 5백만원까지

주고받은 35명令狀

【釜山】속보=부산지역 개인택시 운전경력 위조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시경은 15일 남천운수 상무 강화양씨(46·南區龍湖3洞364) 아리랑택시 업무과장 유흥락씨(48·東萊區蓮山4洞603) 서울고속 범일영업소총무 양훈칠씨(40·南區門峴2洞477)등 운수업체 간부4명과 이들로부터 허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이명자씨(31·東萊區長箭3洞)등 운전사 31명등 모두 35명을 무더기 검거,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배임수증죄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대주통운(北區 三樂洞392) 업무주임 안종욱씨(39) 브로커 정귀득씨(45)등 14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천운수상무 강씨등 운수회사 간부들은 지난7월1일부터 20일사이 자기회사에 근무하지도않은 운전사 40여명에게 7～10년씩 근속한것처럼 허위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줘 이들이 지난7월말로 마감된 부산지역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신청하게한 혐의다.

또 운전사 이명자씨등은 삼하교통 업무과장 정화남씨(40·구속중)등 운수업체 간부와 브로커등에게 경력증명서 1건당 최하20만원에서 최고5백만원까지 모두2천5백여만원을 주고 택시회사에 7년이상 근속한 것처럼 허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다. 【釜】

大檢 常習·거액財産범죄

重刑 엄단指示

대검찰청은 15일 「사기 횡령 배임등 재산범죄중 상습범이거나 거액범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가중처벌할수있는 범위내에서 중형을 구형, 엄단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이와함께 거액의 재산범죄수사에서는 범죄사실은 물론 범행동기, 범죄수법 전과, 피해결과의 중대성, 범행의여파로 일어난사회문제, 범죄로 취득한 재산처분내용등 양형조건에 관한 사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강조했다.

대검은 또 중요대형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급적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간여하여 공소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제반양형조건을 법정에 완벽하게 제시하고 범죄의 발생원인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같은범죄의 재발을 예방할수있는 대책을 강구할것등도 지시했다.

8度막걸리 내달부터 市販

安武赫국세청장은 15일 오는11월1일부터 8도짜리막걸리를 생산, 市販할수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安국세청장은 이날 국회財務委에서 막걸리의 도수를높이는 방안을 묻는 金在瑛의원(民韓)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前宜寧 경찰서장 징역10월을 求刑

【釜山】경남宜寧郡宮柳面경찰관총기난동사건관련피고인 3명에게 1심선고량과 같은 징역 10월에서 징역1년이 각각구형됐다.

15일상오 10시 부산지법 1호법정에서 부산지법 제1형사 항소부 尹永五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결심공판에서 검찰은 前宜寧경찰서장 崔在闖(57)피고인에게 징역10월을, 前宜寧경찰서 宮柳지서장 許昌淳피고인과 동지서차석 金鎭宇피고인에게(35)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항소심선고공판은 오는22일 부산지법1호법정에서 열린다. 【聯】

馬山國體 출전선수 13명 市販우유 사먹고 食中毒

【馬山】시중에서 우유를사먹은 전국체전출전선수 13명이 식중독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大邱계성고 농구선수 김명학군(19)등 大邱선수단원 8명과 권명희양(19)등 경북선수단원5명이 14·15양일간 시중에서 우유를 사먹고 배가아프고 설사를 하는등 식중독증세를 일으켜 馬山시내 고려병원에서 치료받았다. 【聯】

내고향통닭집
칼국수
오뎅 전문
통만두
658½ BLOOR ST. W.
☎ : 537—0432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Richard Y. K Wong
Insurance Broker
보 험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
⊙상업(가게·레스토랑등)전문
312 DUNDAS ST. W. TOR.
(B)977—4057 (H)461—7769
Registered Insurance Broker 리차드·왕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한국일보
케나다 사회를 아는 지름길.
교포사회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관심을 가지신 분은 꾀히 구독해야 할
"한국일보"(THE KOREA TIMES TORONTO)를 잊지 마십시오.
주6일 발행(금·토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월 : $9, 6개월 : $50, 년 : $99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화 : (416) 533—2361

구독 신청서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카드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5억짜리 超豪華승용차 등장

롤즈로이스社제작…東京서 主人기다려

◇시가66만달러짜리 초호화 롤즈로이스팬텀IV。

◇추천할만한 승용차로 판정받은 일제 도요다 코롤라。

海外 경제話題

加서 新型車 적격판정놓고 각국메이커들 喜悲 엇갈려

83년도 신형승용차 판매시즌을 앞두고 캐나다의 오타와에 본부를 둔 자동차 안전협회는 최근 내년 판매될 승용차의 적격판정을 내려 각메이커간에 희비가 엇갈리고있다.

이협회는 매년10월에 신형승용차를 차종별로 「추천할만한」「타도 무방한」「추천하지못할」 세종류로 구분해서 ABC등 알파베트순으로 발표하고있다.

이번발표결과 북미지역에서 생산되는 승용차가 지난해보다 다소 많이 추천케이스에 끼어들었다. 또 전통적으로 상위그룹에 속해온 일제승용차도 다수가 추천케이스에 들었다.

그런데 협회는 추천케이스에 속한 GM社 승용차의 대부분은 색깔이 신통치못하다는 주석을 달았다.

협회는 캐나다전역의 1만5천회원으로부터 신형승용차에대한 추천과 불만을 수집하여 적격여부를 판정한다.

신형승용차 판정은 완벽한 사후서비스, 전국적인 판매조직및 저렴한 유지비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각국의 자동차메이커들은 이연례조사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계속무시하고있으나 판매에 상당한 영향이 미치기때문에 내부적으로 크게신경을 쓰고있다.

한편 세계최고급승용차 메이커인 롤즈로이스社는 최근 시가 66만달러(韓貨 약4억8천8백40만원)짜리 신형 롤즈로이스 팬텀IV를내놓아 화제가 되고있다.

보통 롤즈로이스보다 6배가비싼 팬텀IV는 만드는데 3년이걸렸으며 내부에 수정술잔이비치됐고 스테레오전축, 마이크, 전화, TV등이 설치돼있다.

이롤즈로이스는 현재 일본의 東京에 수입되어 주인을 기다리고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차의 판매책인 히로야끼·야마자끼씨는 「내가 66만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우선 집을 한채사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금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것.

협회가 발표한 판정중 「추천할만한」에는 소형 포드 머스탱, 도요다 스타레트등 9개, 중형 닷도산 810등 11개, 표준형 GM 몬테칼로등 5개, 「타도 무방한」에는 소형 포드 에스코트등 9개, 중형 푸조등 5개, 표준형 클라이슬러 코르도바등 13개, 「추천하지 못한」에 소형 피아트등 14개, 중형 스카이라크등 8개, 표준형 클라이슬러 E클래스등이 포함됐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산 자동차는 좋건 나쁘건간에 판정대상에 들지도 않았다.

【外誌에서】

프로野球 MVP 朴哲淳

정규시즌폐막 타격 白仁天·홈런 金奉淵

황금의 오른팔 朴哲淳이82년 프로야구 첫시즌 최우수선수로 선정돼, 부상으로 승용차를 받았다. 코리안·시리즈 제패의 견인차였던 OB 에이스 朴哲淳은 부수부문4 개인상에서도 최다승(24승) 최고방어율(1·87) 최고승률(0·857)의 3冠을 휩쓸었다.

14일밤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三星-MBC의 정규시즌 최종전에이어 베풀어진시상식에서 白仁天(MBC)은 타격상, 金奉淵(해태)은 홈런상, 金城漢(해태)은 타점상, 金一權(해태)은 도루상을 받았다. 이날 경기서는 MBC가 9회말 崔正基의 2점홈런으로 三星에 2-1로 역전승했다.

◇개인상 ▲최우수선수=朴哲淳(OB투수) ▲최다승투수=朴哲淳24승 ▲방어율우수투수=朴哲淳1·87 ▲승률우수투수=朴哲淳0·857 ▲구원투수=黃圭奉(삼성)20회 ▲타격=白仁天(MBC)0·412 ▲타점=金城漢(해태)69 ▲홈런=金奉淵(해태)22 ▲도루=金一權(해태)53 ▲승리타=柳世鍾(OB)9 ▲특별상=李鍾道(MBC) 개막전역전결승만루홈런 ▲최고출루율=白仁天(MBC)0·502 ▲우수심판=金玉經 ▲감투상=金永德(OB) ▲진기록=朴哲淳 ▲기념상=吳大錫(삼성) 사이클히트

◇베스트10 ▲투수=朴哲淳(OB) ▲포수=李萬洙(삼성) ▲1루수=金奉淵(해태) ▲2루수=具千憲(OB) ▲3루수=李光殷(MBC) ▲유격수=吳大錫(삼성) ▲좌익수=李鍾道(MBC) ▲중견수=張泰洙(삼성) ▲우익수=尹東均(OB) ▲지명타자=白仁天(MBC)

◇최우수선수 朴哲淳

한국、濠와爭覇 머라이언컵 축구

【싱가포르AP=聯合】 濠洲는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회 머라이언컵 국제축구대회 준결승전에서 말레이지아를 5-0으로 대파, 17일 한국과 패권을 다투게 됐다.

한국은 13일의 준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를 1-0으로 물리쳐 결승전에 진출했다.

7개국이 참가한 이번대회 우승팀에게는 1만5천달러, 준우승팀에는 5천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준결승전

호주 5-0 말레이지아

한국-中共격돌 男子배구7·8위戰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聯合】 제10회세계남자배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은 16일상오8시 中共과 7·8위전서 격돌케 됐다.

◇전적

▲준결승토너먼트

불가리아 3(15-13 15-6 15-8)0 한국

폴란드 3-1 중공

브라질 3-0 일본

소련 3-0 아르헨티나

구독신청 배달사고 633-2361

바자회 초대

금번 저희 한인장로교회 여선교회는 아래와 같이 바자회를 실시하려 합니다.

특별히 하루 앞당겨진 할로윈 데이를 맞아 할로윈 의상도 함께 취급합니다.

자녀들도 함께 초대하오니 부디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 1982년10월30일(토) 오전9시~오후6시

장소 : 한인장로교회 (1183 Devenport Rd.)

☎ : 535-6864

취급품목 : 할로윈 의상, 일반 의류, 밑반찬류, 김장배추, 도서류, 장식용 조화및 생화, 화장품, 떡만두 등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여선교회 일동

F I Q낮은어린이에「材木」감 많다

人類文明에 공헌한 모험·探險家 수두룩

영국문호 셰익스피어는 두려움을『가장 비열한 정주』라고 표현했다. 두려움은 사회질서를 형성하는 주요수단이 되기도했고 또 인류발전의 계기를 제공하기도했다. 인류의 놀랄만한 모험은 대부분『겁없는 少數』에 의해 성취돼왔다. 어떤 두려움이 사회를 결속시키며 어떤 겁없는자들이 대단한 모험을 했는가.

겁없고 自己合理化의 天才

충격感受帶 정상인의 2倍

잘못하면 浮浪兒로… 父母의사랑 절실

◇「잘못된 재목」이 된 백주의 살인자 게리·길모어。

◇「올바른 재목」이 된 低FIQ 소유자인 超音速돌파 조종사 척·이거장군。

『20세기의 대담무쌍한 영웅』으로 인정받고있는 테스트파일럿트(시험비행 조종사)척·이거장군은 위대한 모험을 해낸 두려움없는 인격의 소유자로 꼽힌다. 그는 조종사중의 조종사인 테스트 파일럿트로 활약하다가 1950년대에 나온 X-로키트機를 처음타서 세계최초로 초음속벽을 뚫어냈다.

이거는 X-로키트비행의 시험비행이 있기 하루전날밤 말을 험하게 몰다가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졌다. 그러나 그는 세계최초의 음속돌파자라는 영광을 놓치지않기위해 갈비뼈부러진것을 태연히 감추고 비행장으로 나갔던 것이다.

그는 2만6천피트상공에 올라가 드디어 세계최초의음속돌파기록을 세웠다.

토머스·울프의 책「올바른 재목」(The Right Stuff)에는 척·이거의 얘기와 모험심넘치는 우주인 얘기가 들뭉실려있다.

그러나「올바른 재목」의 내용은 日本式기미가제같은 앞뒤도 모르고 덤비는 인간종의 얘기가 아니고 모험을 즐기는, 두려움이란것을 처음부터 모르는 인간성 중심으로 내용이 엮어져 있어 특징이다.

「올바른 재목」의 특징은 深淵의 가장자리를 눈앞에하지 않고 걸을수있는 배짱을 가지자, 천길벼랑에 서서도 농담을 할줄아는 그런 성격이다.

초음속으로 달리던 비행기가 갑자기 곤두박질해 땅으로 떨어질때 대부분의조종사들은 눈을 감아버리지만 모른다. 그러나 이같은 같은이들은 그럴수록 마음이 차분해지고 현장에서의 최선의길을 잘찾아낸다.

이런 겁이없는자들을 분석하기위해「두려움(Fear) I Q」라는것이 고안됐다.

사람에 따라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각각 달라 이 감정의차이를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이같은 담은자들은「두려움IQ」가 극히 낮은자들.

低 Fear IQ 소유자들은 많은 모험가, 탐험가, 우주비행사, 지도자들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인류사회는 이들 소수의 低 Fear IQ소유자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처럼 발전못했을 것이다. 北美대륙이 발견됐었는지도 모르고, 低FIQ가 낮은자들 때문에 이런 유익한 FIQ가 개발되지 못했는가.

어떤 담대한 자는 사회의 영웅이되고 어떤 담대한 자는 질서 파괴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한 재목이 한때는 사회의 공헌자가 됐다가 질서파괴자로 전락하기도한다. 신문에는 보도가 잘안되었지만 공헌을 세운 우주인들이 은행강도로 경찰에 붙들린 일도 있으며 유명한 정치인들이 희대의 여성 농락자로 밝혀진일도있다.

두려움이란것은 우선 적응하게 해버리는 본질을 갖고 있고 또 低FIQ소유자들이 가끔 위험한 인물이 되는 이유에서 FIQ가 진화되지 못했다고 볼수있다.

低FIQ소유자중 잘못된 방향으로 담대함이 돌려진 인격을 흔히「잘못된 인재」(The wrong stuff)라고 한다.

「올바른 재목」과 「잘못된 재목」의 차이는 그야말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것.

심리학자 허비·클러크리에 의하면 低FIQ소유자중에는 정신병자가 많다. 「명철한 얼굴」(The mask of sanity)에서 클러크리는 이를 정신병자(Psychopath)들은 보통 머리가 좋고 매력적이며 또 보통사람들이 할수없는 담대함을 지녔다고 한다.

그러나 자세히살펴보면 정신병자들은 믿을수없으며 眞實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이들은 진실한 사랑을 할 능력도 없다. 이들은 과거의 불유쾌한 자기경험을 교훈삼아 거기서 교훈을 찾아내지 못한다. 후회하는 능력, 부끄러움도 전혀 없고 자기합리화의 천재이다. 타인을 비방하기가 일쑤다.

이들 정신병자와 低FIQ소유자가 꼭 동일한 범주라고는 말할수없지만 정신병자와 低FIQ소유자의 관계가 곧잘 같은것.

가령 低FIQ어린이의 경우 부모가 이들에대해 갖는 적당한 두려움을 갖게해주지 못하고 계속 칭찬만을 하게되면 低FIQ어린이는 「올바른 재목」이 될 수도 있는것이다.

또한 低FIQ어린이들은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않는 경향이 많아 어릴때부터 부모와 떨어지기 일쑤다. 그러나 이런 低FIQ야말로 인류사회를 발전시킨 主役의 가능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이콜로지·투데이誌】

FIQ 테스트법

다음 12개문항중 자기의 평소 습관에의한 행동선택을 한다.

①▲홍수가져 집을 진흙으로 침해됐다. ▲이를 깨끗이 치우는일과 ▲낙하산 하강을 한다.

②▲손님이 올것에 대비, 어느 하나를 선택.

③▲부르튼 발로 하루종일 걷는다. ▲독사가 있는곳에 천막을 친다.

④▲은행에 들어가 복면 강도를 만난다.

⑤▲감기가 들고 머리가 아픈채로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있는다. ▲파티에서 나쁜친구를 만나서 놀임…

⑥▲비행기를 타고가던중 조종사가 엔진고장이 났다고 말한다. ▲해야할것…

⑦▲사람들이 많이 가는곳에 가서 감자를 캔다.

⑧▲일주일간 하루종일 일한다. ▲TV인터뷰에 나가 얼굴을 보인다.

⑨▲신통찮은 그룹에 나가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을 세워 연설한다.

⑩▲서커스구경을 갔다가 가자기 …

⑪▲시간당 95마일의 속도로 달린다. ▲스포츠카를 탄다.

⑫▲빌딩 마루 바닥에서 하나는 떨어진다.

이어 低FIQ이다. 1명, 여자는 10명중 1명.

비행접시 첩보위성일까

◇미국의 저명한 과학만화가 이레나·로만이 그린『비행접시의 탈을쓴 소련의 우주첩보위성』상상도。

비행접시의 본체는 소련첩보위성일까.

카터前美대통령 취임때쯤인 1976년경 논란의 극점에 이르렀던 未確認비행물체(UFO) 정체는 그해 백악관의 특별지시에따라 과학자문을 받은 美국립항공우주국(NASA)이「계속 조사할만한 대상이 못된다」는 결론을내렸고 이에따라 지난10여년간 ...

에관한 보고서에의하면 이연구는 1967년 이후부터 자료를 모은것. 美중앙정보국을 비롯한 미국의 최고 정보기관들이 결정 ... 소련은 시베리아북단 플레세츠크에 거대한 비밀우주발사기지를 갖고있으며 이 기지에서 발사한 우주첩보위성 ...

『괴물체가 됐다』란 제보가 27일의『해괴한 모양의 비행접시』... NASA의 결과 보고후 세계전자신문이 ...

UFO궤적을 좇아오던 美공군도 손을 뗐던것이다.

카터는 조지아州지사 시절 ... 『하얀 꼬리를 하던중 … 』

【鄭逸和기자】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NOON~4AM

일 : NOON~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 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왜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밴, 트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의문

트로피 골프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메달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캐다록에서 50% OFF

++ 트로피 & SPORTS ++

이기훈 ☎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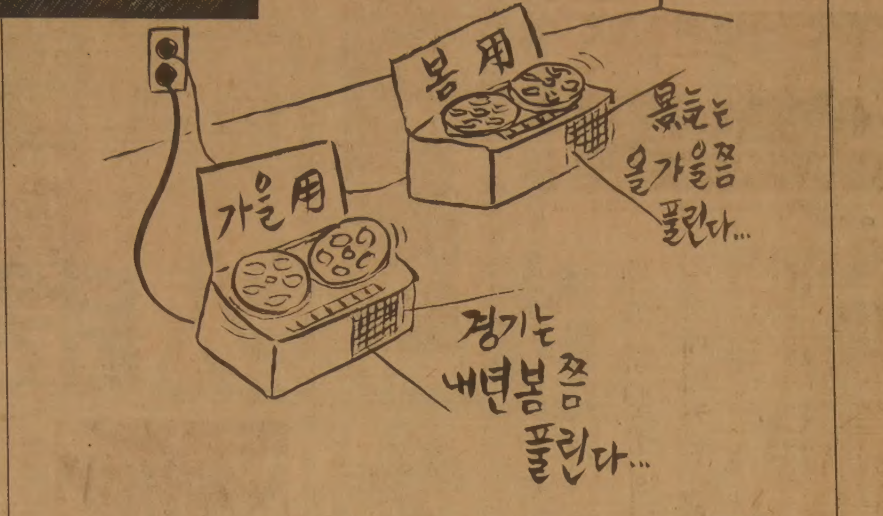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안의섭 時事 칼럼

같은 소리도 나고 좀 다른 소리도 나고…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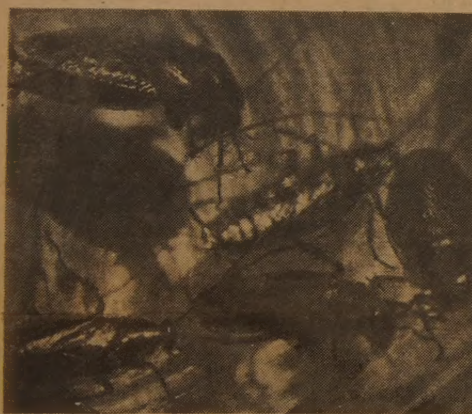


교대교대로 틀기만 하면 됩니다… 안

사람사는 곳마다 바퀴벌레 天國

병균 옮기고 번식력 강한 독충

완전박멸 방법은 온동네 집중살포해야


◇번식력이 강해 가정 빌딩등 도처에 서식하는 바퀴벌레는 무서운 전염병을 옮긴다.

피해 갈라진 틈이나 구석진곳에 살기를 좋아하는 바퀴벌레는 옷이나 구두, 책, 가죽제품등을 갉아먹는가하면 음식물을 휘저어서 악취를 풍기게한다.

잠자는 어린이를 물어 상처를 입히고 자극성물질을 분비하여 피부병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도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병원성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매개시킨다는데 있다.

장티푸스·이질·콜레라·간염·결핵·파상풍·각종 기생충등의 병원체를 발끝이나 몸에 묻히고 다니다가 음식물에 옮겨 놓는다.

바퀴벌레 한마리가 몸에 묻히고 다니는 각종 세균수는 무려 1만5천여마리나 된다는것.

이밖에도 간혹 눈이나 귀에 들어가 시력과 청력장애를 일으키게도 하고 물리는 경우 출혈·또는 심한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수도 있다.

구제 바퀴벌레를 박멸하기 위한 연구는 외국의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각종 구충제가 개발되는것은 물론이고 美國의경우 천적인 거미를 이용하는 연구까지 개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립보건연구원등에서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꾸준히 연구되고있다.

바퀴벌레에 혐오를 느끼는 민간인끼리 모여 바퀴벌레 연구회까지 조직해서 구제방법을 모색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바퀴벌레의 급증이 문젯거리로 되어있다.

바퀴벌레를 퇴치하는데는 바퀴벌레가 서식하기 쉬운 곳을 정기적으로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다.

특히 음식물이나 기름기의 얼룩이 남아있지 않도록 말끔이 지워야 한다. 그리고 외부에서 침입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일이다.

현재 바퀴가 없는 가정은 외부의 배달용기에 묻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적극적인 구제방법으론 살충제를 사용하는것.

그런데 살충제가 갖춰야할 요건으로는 살충효과와 침투성이 강하고 잔존효과가 크며 바퀴벌레를 쫓기 보다는 죽이는 것이어야만 된다.

시판되는 살충제는 스프레이형과 종이덫의 두 종류.

종이덫은 끈끈이를 칠한 위에 바퀴벌레유인제를 뿌려 냄새를 맡고 몰려들었다가 끈끈이에 달라붙도록한것.

스프레이형은 살충액이 발바닥에 닿게되면 그 액이 침투되어 신경을 죽여서 죽도록 하는것으로 냄새에 취해 죽는것이 아니다.

스프레이형 살충제를 뿌릴때는 살충액을 잘 흩뿌어 바퀴벌레가 모여있을만한 곳이나 지나다닐만한 통로에 흥건할정도로 많이 뿌려야한다.

뿌린후 약효지속기간은 약 1주일정도이므로 그사이 지저분하다고 바닥을 걸레질해버리면 안된다.

그대로 두어야 언젠가는 지나다니다가 발에 약을 묻혀 죽게된다.

1주일후 다시한번 뿌리고 그후는 1~2개월에 한번정도 뿌려야한다.

바퀴벌레가 좋아하는 빵가루나 밥, 멸치가루등에 농약이나 붕산을 타서 다니는 길목에 놓는 방법도 있으나 위험하고 속효성이 없다.

이밖에도 바퀴벌레가 많이 서식하는 하수구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죽이는 수도 있다.

그러나 완전박멸의 방법은 안된다. 바퀴벌레는 단번에 잡지 않으면 약에 의한 내성이 생기는수도 있다.

또 명심해야 될일은 독립가옥이 아닌 아파트나 밀집건물의 경우 한집만 열심히 바퀴벌레를 잡아도 헛 일이다. 얼마 안가서 이웃에서 옮아오기 때문이다.

아파트나 상가건물, 연립주택등과 같은 경우 이웃끼리 의논해서 다같이 구제운동을 벌여야 효과를 얻을수가 있다.

해충 살기좋은 밀집 생활터

◇빵을 갉아먹고 있는 바퀴벌레。

바퀴벌레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가정집·음식점은 물론 사무실 고층빌딩 할것없이 아무곳에서나 그 흉물스런 모습을 드러낸다. 무서운 질병까지 옮긴다는 바퀴벌레는 특히 도시지역에서 무서운 번식력을 보이고 있는데 살충제를 뿌려도 들쳐럼 퇴치하기 어렵다. 바퀴벌레에 대한 생태와 그 구제방법을 알아본다.

바퀴벌레는 어디를 가도 쉽게 눈에 띈다. 음식점 식탁위로 슬그머니 나타났다간 손살같이 도망치고 술집 안주접시에 달려들기도 한다.

사무실 책상서랍을 열면 툭 튀어나와 달아나기도하고 쌓아둔 서류뭉치 틈새에서 나왔다 들어갔다하기일쑤이다.

생김새부터가 흉물스러워 기분을 몹시 상하게 하는 바퀴벌레는 가정집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튀어나와 가정주부나 어린이들을 놀라게도 한다.

그러나 이 정도면 다행이다. 바퀴벌레는 콜레라·장티푸스등 무서운 질병을 옮기기도 하고 어린이를 깨물어 피부병을 전염시키기도 한다.

요즘은 파리보다 더 해로운 곤충으로 알려져 바퀴벌레 퇴치를 위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흉악한 해충을 한때는 돈벌레 또는 복벌레라하여 가정이나 음식점등에선 절대 잡지않고 보호한 적이었다.

심지어는 같이 부자가 돼자고 가까운 친척집에 분양까지 해주는 난센스도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이같은 미신은 거의 사라졌지만 오랜 관습탓인지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퀴벌레에 무척 관대한 편이다.

이때문에 바퀴벌레가 기하급수적으로 번식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강남지역 어떤 아파트의 경우 1백여가구중 바퀴벌레가 없는집이 한집도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난방시설이 좋아졌고 고층건물 아파트등 집단생활처가 늘어난데다 음식물이 풍부해져 바퀴벌레가 급증할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이 해충이 크게 번식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있다.

생태 약4억년을 형태적인 변화없이 살아온 바퀴벌레는 약 4천종이나 된다.

그러나 대부분은 옥외에서 서식하고 30여종만이 가옥안에 살아 위생상 문제가 되고 있다.

그중 우리나라에는 9종이 발견되고 있는데 4종이 가옥안에 서식한다.

크기는 1~4㎝정도로 알→유충→성충으로 발육한다.

암컷은 30~50개의 알이 든 주머니를 꼬리에 달고 다니다 으슥한 곳에 떨어뜨린다.

알은 여러차례 허물을 벗으면서 2~3개월만에 성충이 되는데 수명은 3~10개월정도.

암컷은 죽을 때까지 4~5차례 산란하므로 한마리당 2백개가량의 알을 낳는데 부화율은 90%로 번식률이 강하다.

바퀴벌레의 특성은 잠복성·야행성·군거성·잡식성·틈사이로 도망가는 성질등. 먹이를 구할수 있고 적당한 온도(25도~30도)가 유지되는 어두운곳이면 수십마리씩 모여있다가 밤이 되면 몰려나온다. 최근 日本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싱크대밑 하수관부근 모서리에 46%, 가스테이블밑의 그릇넣는곳에 24%, 찬장이나 장식장뒤 16%, 냉장고 뒤나 밑에 14%순으로 나타났다는것.

이밖에도 부엌의 벽틈, 서랍, 라디에이터, 화장실등에서도 발견되고있다.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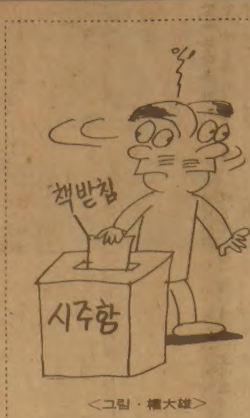
PAPER-SERVICE-REPAIR
⊙품목 : ●각종 전자캐쉬레지스터 (파나소닉, TEC, SHARP, NCR등등)
●저울 ●복사기

세일기간
10월12일 ~10월23일
<2 주간>

교민 여러분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저희 회사에서는 특별쎄일기간을 설정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기계를 다시 구입코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쎄일기간을 설정하고 여러분께 봉사코자 합니다.
사무실이나 어떤 가게든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가 품목에 특별할인해 드릴 것이오니, 일단 값을 비교해 보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수 일 올림

※모든 기계에 대해 책임판매로 100 % 보증.
822 THE QUEENSWAY (퀸스웨이×이슬링톤)
☎(B252-7377 (R762-4536

사건記者 수첩



<그림·權大雄>

신문에 안난 現場

강력사건이 도심의 가을을 공격하고 있다. 관악구상도동에선 초저녁에 괴한이 행인의 몸 9군데를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강탈해갔고 동대문구 홍릉갈비집 종업원은 동료를 한밤중에 맥주병으로 찔러 살해했다. 용산구에선 재건대원이 역시 동료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등 더위가 다 지나간 가을 날씨에도 끔찍한 사건은 꼬리를 물고 있다. 이번주 「기자수첩」은,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구걸해 먹던 60대 노인이 닭똥집 한개를 몰래 삼키다 목에 걸려 숨진 가을 낙엽처럼 가없은 사연도 메모됐다.

60대 老人 닭똥집 몰래먹다 목에 걸려 그만……

돼지가 訟事되고

▲서울민사지법 합의5부(재판장 崔休變부장판사)는 원고 孫모씨(서울시종로구내수동)가 丁모·白모씨부부(서울시 종로구필운동)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에서 『丁씨부부는 孫씨에게 모돈(母豚)42마리를 인도하라』고 판결.

孫씨는 피고丁씨에게 사업자금조로 1천7백25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않아 지난해 10월께 약속어음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다급해진 丁씨가 81년11월29일 2차례에 걸쳐 4백만원을 갚기로 약속하고 돼지42마리를 담보로설정, 일단 화해했으나 이를 또다시 갚지않자 『돼지를인도하라』는 이색소송을 냈었다.

丁씨는 이에대해 돼지는 부인白씨가 푼돈을 모아 새끼를 사서 기른것이고 돼지가 또 다른 채권자 玄모씨에게 가압류된 상태에 있어 인도가 불가능하다고 반론을 폈으나 재판부는 문제된 돼지가 부부공동소유이고 가압류이전에담보가 설립된 것이므로 이유없다고 丁씨부부에게 패소판결을 내린것이다.

빚돈 訴訟으로 돼지가 담보

시주돈 훔치다 들킨 神學生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절간의 법당에서 시주돈을훔치려던 姜熙濟군(20·H신학대1년)을야간주거침입·절도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姜군은 지난28일밤 9시50분께 서울서대문구창전동116 성룡사 법당에 몰래들어가 불전함에 스카치테이프를 거꾸로붙인 책받침을 넣어 함속에 있던돈이 붙어나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주돈2천원을 훔치다 붙들렸다.

姜군은 安養에서 서울에 놀러왔다가 돈이 떨어져 친구들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시주돈을 훔치려 했다면서 선처해줄 것을 호소.

▲서울성동경찰서는「배따기」전문소매치기 李홍종씨(31·절도전과3범·중구신당동432)와 徐영길씨(30·절도전과9범·강동구길동342)등 2명을 특수절도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이들은 지난달 29일 하오 7시10분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시외버스 터미널 정류장에서 211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중 승객 金모씨(여·24·B여중교사·마포구도화동)의 핸드백을 열고 국민은행발행 가계수표 18장을 훔친뒤 신당3동앞에서 버스를 내려 길옆「한소사」전당포빌딩지하실계단에서 훔친 수표를 나눠 가지려다 마침 이곳에 배치돼 방범근무중이던 성동경찰서 형사계 崔승종 형사등 4명에게 붙잡혔다.

길가다 괴한에 봉변

▲지난 2일 하오 7시40분께 서울동작구상도4동244의13 앞길에서 이동네 梁雙順씨(37·상도4동364의185)가 20대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얼굴과 가슴등 온몸 9군데를 찔린후 현금 2만원이 든 손가방과 끼고 있던 1돈반짜리 금반지 1개를 빼앗겼다.

梁씨는 피습직후 이곳을 지나던 행인에 의해 강남성심병원으로 급히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위독하다.

梁여인에 따르면 범인은 뒤에서 걸근, 어깨를 툭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말한뒤 손가방을 빼앗으려다 『사람살리라』고 소리치자 갖고있던 15㎝가량의 흉기로 梁씨의 온몸을 마구 찔러 쓰러뜨리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서울성북경찰서는 4일 金學洙씨(24·전과2범·대전시도마동143의2)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金씨는서울성북구안암동3가75 田모씨(34·여)집에 하숙을 하던 지난8월초 동네사람들에게 육군대위라고 사칭하며『부대PX에서 컬러 TV를 싯가 보다 싸게 얼마든지 구입할수있다』고속여 田씨로부터 1백35만원울 받은것을 비롯, 이웃주민 4명으로부터 모두 6백3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협의이다.

▲4일밤0시반께 서울동대문구청량리1동205의296 홍릉갈비집 옆골목에서 이 갈비집종업원 尹成鶴군(21)이 깨진 맥주병으로 동료종업원 李해수씨(24)를 찔러 그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尹군은 이날 영업을 마치고 李씨와 함께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 사소한 말다툼 끝에 밖으로 나와 빈 맥주병을 깨어 李씨의 왼쪽어깨를 찔러 숨지게 했다는것.

술먹다 맥주병께 동료살인

▲서울남대문경찰서는 4일 裵익수씨(24·재건대원·서울용산구도동1가34의7)를 살인협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裵씨는 3일밤 11시반께 서울용산구도동1가8의2 도동상회앞길에서 동료 金병철씨(24)와 사소한 시비끝에 갖고있던 과도로 金씨의 배를 찔러 숨지게한 협의다.

손님수표로 물건사다 들통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음식점종업원 尹元植씨(21·서울종로구신문로1가158)를 절도협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尹씨는 지난달 30일하오4시께 롯데쇼핑센터6층 카메라부에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음식점에서 주워 감춘 서울신탁은행 구의동지점발행 5백만원짜리 자기앞수표1장을 내고 카메라를 사려다 수상히 여긴 종업원의 신고로 붙잡혔다.

尹씨는 지난7월5일 하오5시50분께 음식점서 청소를 하다 손님 元모씨(40·여·동방생명 진명영업소 외무사원)가 실수로 떨어뜨린 이 수표를 주워 숨겨뒀다가 추석을 맞아 고향에 내려가기위해 물건을 사려갔다가 덜미를 잡힌것이다.

▲지난3일 하오3시반께 서울 성북구 장위동 동방고개에서 삼화상운소속 서울5사3623호 시내버스(운전사 김동진·46)를 타고가던 金炳玉씨(47·상업·장위3동176의18)가 현금5만원과 가계수표등 5백45만원을 소매치기 당했다.

金씨에 따르면 이날 시내로 들어가기 위해 장위2동 주택은행 앞에서 버스를 탔는데 고개를 지나면서 섬뜩한 느낌이 들어 웃옷 왼쪽 호주머니를 만져보니 이미 주머니 밑이 면도칼에 찢겨져 있고 지갑과 돈이 모두 없어졌다는 것.

경찰은 金씨가 소매치기 당한 직후 40대 남자 2명이 급히 내렸다는 승객들의 진술에 따라 추석대목을 노린 소매치기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헤어진 남자딸 유괴

▲3년간 동거해온 남자가 본처에게 돌아가자 이에 앙심을 품은 여인이 본처 딸을 죽여 야산에 버리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화성경찰서에 따르면 公玉俊여인(31·경기 성남시태평동)은 지난29일 3년간 동거해오던 李모씨(31·성남시성남동)가 장사밑천 50만원을 못구해온다고 구타한후 본처에게 돌아가버리자 이날하오2시께 李씨의 장녀 正熙양(6)을 유인, 경기 화성군 반월면 월암3리 야산에서 목을졸라 죽이고 옷을 벗겨 서울 서초동 김장쓰레기장에 버린뒤 도주했다가 30일 상오 11시께 서울 관악경찰서에 자수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퇴근길의 여교사를 치근치근 따라다니면서 데이트를 강요한 張모씨(38·순천시금곡동)를 즉심에 넘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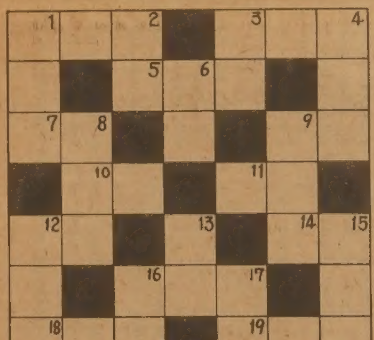
경찰에 따르면 모회사 순천지점에 사무원으로 근무중인 張씨는 지난 27일하오 6시20분께 버스옆좌석에 앉아있던 S중학교 교사 崔모양(22)에게 『이야기좀하자』며 접근했으나 崔양이 상대를 해주지않고 차에서 내리자 따라내려 끈질기게 데이트를 강요했다고.

崔양은 길거리에서 張씨에게 계속 시달리다가 마침 지나가던 자가용 승용차에 구원을 요청, 차에올라 뒤따라 탄 張씨를 순천경찰서삼산동파출소에 넘겨버린것.

가족과 함께 두뇌 체조를

뉴스 낱말 풀이 퀴즈

<제27회 퀴즈>



<힌 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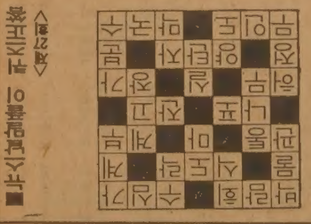
■가로

1. 국제상품 전시장이라지만 연일 인파가 몰려 고생만…
3. 곡조가 슬픈 평안도 지방의 민요
5. 여러 음식을 맛보며 먹는 일을 도락으로 삼는 일
7. 꿰뚫음
9. 의붓 아버지
10. 범죄행위라 인정되는 외국선박을 붙잡음
11. 치르고 난 나머지 돈
12. 덧없음
14. 사내가 아내를 맞는 일
16. 짐승의 털을 굵은 베실에 박아 짠 피륙, 흔히 바닥에 깜
18.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섬
19. 춘천지방의 명물인 국수의 일종

■세로

1. 역사자료·학술·예술 자료를 수집, 전시하는 곳
2. 여럿이 모여 함께 음식을 먹는 일이
3. 요구나 제의를 받아들임
4. 집안 가계의 수입·지출을 적고…
6. 식칼질 할 때 쓰는 두꺼운 나무토막
8. 짜개지 않은 통째의 나무
9. 일정한 기일안에 이행하도록 재촉하는 서류
12. 네덜란드 프로팀서 활약중인 한국의 축구 선수
13. 공포탄이 아님
15. 분자가 분모보다 큰 분수
16. 권리·재산등을 타인에게 넘겨줌
17. 영화나 TV화면에 글자가 나옴

<정답은 12면에>



숨은그림 찾기

구성·장태산

■숨은 그림
혀, 뱀, 못, 스크류드라이버, 페인트붓, 포크, 무우, 세발 자전거, 미꾸라지, 중학생모자, 남자구두1짝, 전구알, 돌고래, 야구배트

신사임당

신사임당은 조선시대 중종과 명종때의 사람으로서 학문이 깊고 지혜로왔으며 더 또한 높았었던 분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성도 지극했으며 남편 또한 잘 섬겼다.

그분입니까. 어진 어머니로서 자식들 또한 훌륭히 키워 내셨다 합니다.

후세 사람들이 여성의 사표(師表)로서 우러러 존경하고 있는 분입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를 가진 세아이의 어머니가 된 사임당의 나이 서른세살때 어여쁜 선녀 하나가 바닷속에서 나와 옥동자를 선사하는 꿈을 꾸고 네째 「현룡」이란 옥동자를 낳았읍니다. 이 아이가 후세의 저명한 학자이신 율곡선생이 되셨던 분입니다.

<작품속에서>

예배에의 초대
주일오후 2:00시 (한국어·영어)
개혁장노교회
(문의 492-9889)
1355 Warden Ave. Scarboro
(Elsmere 와 Lawrence 사이)
THE WORD OF GOD-INCARNATE
THE FAITH OF 16C-REFORMERS
하나님의 말씀·개혁자들의 신앙

〈식품 제조업체 탄생〉

ONTARIAN FERMENTATION (온타리안발효공업) CO.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온타리안 발효공업에서 최신 기술과 오랜 경험으로 식품 전문가에 의한 한국종합식품및 일부 일본식품을 비롯 하여 다수 서양식품 생산을 앞두고 우선 지면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더욱 성원해 주시옵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읍니다.

최재경올림

품 목: 21종류

※새로 각종 Soup을 개발했읍니다.

콩나물(순자연성장에 의한 것임-화학약품이 전혀 포함 안돼있음)
두부(일체 간수가 없는 두부 및 간수가 있는 두부) 2종류
흰떡
한국, 일본 장류
국수류 일체(독특한 구수한 맛을 자랑)
냉면: 진짜 육수
짜장국수, 짜장 Soup
가마보꾸
만두종류
생선 쏘세지
식물성 단백질 쏘세지
우동, 우동 Soup
픽클류 등등.

온타리안 발효공업회사 대표 최 재 경

수험생을 둔 父母가 必讀해야 할

케네디家 29子女는 이렇게 敎育받았다

◇왼로부터「카라·안」「레이비드」「로버트·케네디」「마이켈」「비키」

◇위로부터「테디·JR」「존·F·케네디」「테드·JR」「조」「에드워드·케네디」

영광과 비극, 도전과 좌절로 점철된 미국의 명문 케네디가의 3세들이 앞을 다투어 정치 일선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어 세계적 관심을 모으게 한다. 현재 29명에 이르고 있는 케네디가의 영 파워는, 이들을 길러낸 케네디가문 특유의 가정교육이었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수험생을 둔 부모가 필독할만한 케네디가 29자녀들의 교육현장을 살펴본다.

後孫들도 政治野望 이어받아

존·F·케네디, 로버트·케네디, 에드워드·케네디. 미국의 명문가문인 케네디家의 제2세대를 빛냈던 인물들이다.

한 사람은 제35대미국대통령으로 일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현재 상원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현재 미국대통령인 레이건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존·F·케네디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케네디가문은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그 명성을 떨쳐왔다.

그러나 일찌기 존·F·케네디와 로버트·케네디가 차례로 암살당하고 막내 에드워드마저 지난번 대통령지명전에서 물러서고 난뒤 케네디가문의 영광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자식들인 케네디가의 제3세대 젊은이들은 앞을 다투어 정치일선에 참가, 가문의 영광을 되살리겠다고 호언하고있어 앞으로의 미국정계에서 케네디가문의 영 파워가 어떻게 힘을 발휘할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29명에 이르고있는 케네디가의 제3세대들은 빠르면 오는 85년부터 상원의원 선거등 각종 정치일선에서 선을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중 선두주자는 로버트·케네디의 장남인 조제프·케네디2세(30)와 차남 로버트·케네디2세. 그밖에 존·케네디의 장남 존·케네디2세 등이 뒤를 바짝 뒤쫓고 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정치무대에 화려한 데뷔를 위해 줄달음치고있는 케네디가의 젊은이들의 현주소와 그들을 길러낸 케네디가문 특유의 가정교육등을 알아본다.

◇케네디家의 제1代인 조제프·케네디와 로즈부부. 특유의 가정교육으로 자녀들을 키웠다.

"제3세대들 家門의 榮光 되살리겠다"豪言

케네디家의 제1대인 조제프·케네디와 로즈부부는 현재 29명의 손자가 있다.

장남은 일찌기 잃었지만 차남 존은 보스턴시장을 거쳐 제35대 미국대통령까지 지냈으며 3남 로버트는 법무장관을 역임했다.

그러나 자랑스런 두 아들은 차례차례 흉탄에 쓰러져갔고 4남5녀중 남은 아들은 막내인 에드워드상원의원 한 사람 뿐이다.

그러나 가톨릭을 신봉하는 케네디家는 대대로 산아제한을 금기로 삼아왔기때문에 비교적 자손은 많은 편이다. 로버트의 경우, 부인 에델여사와의 사이에 7남4녀를 두기도 했다.

그중 장남인 조제프·케네디2세가 현재 30세로 케네디家의 제3세대중 맏이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조제프·케네디 2세는 현재 보스턴서내 브라인튼이라는 노동자계급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싼값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서민층을 위해 박리다매로 석유를 판매하고 있는「시티즌즈·에너지·코포레이션」은 지난 3년간 10만명이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싼값에 석유를 공급,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했다. 이로인해 조제프의 이 회사는 미국 굴지의 석유회사인 엑슨社보다도 서민층에 더 많이 알려져 있는 형편이다. 사업은 날로 번창, 뉴욕, 필라델피아, 자메이카등에도 지점을 개설할 계획이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케네디가의 젊은이 중 정치가가 되는 길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는 젊은이란 말을 듣고 있다.

78년 상원의원 선거때는 숙부인 에드워드상원의원의 유능한 참모로 활약, 상당한 수완을 보였고, 79년과 80년의 대통령지명 획득전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다.

78년에 매사추세츠州의 제무국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생각을 가졌지만 주위에서『아직 역부족이다. 좀 더 실력을 쌓은 후 상원의원으로 나가라』고 설득, 뜻을 굽혔는데 85년도에는 상원의원에 나가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뉴욕·타임즈의 한 정치부기자는 조제프가 양친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아 훌륭한 재목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케네디家의 또 하나의 에이스 카드는 조제프의 동생 로버트·케네디 2세다.

결국 현시점에서 에이스는 모두 로버트·케네디의 장남과 차남이며, 故 케네디대통령의 장남 존·케네디 2세나 에드워드상원의원의 장남 테디·케네디2세는 모두 아직 멀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케네디대통령과 재클린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존은 겨우 21세로 아직 정치가적 자질을 발휘하기엔 어린 나이.

한편 테디는 어려서 암으로 다리를 절단했기 때문에 현재 신체장애자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나아갈 길은 정치보다는 사회사업분야라고 생각하고 있다.

로버트상원의원의 차남 로버트·주니어는 형 조제프보다 2살 밑이지만 케네디가문의 젊은이 중 제일 머리가 좋다는 세간의 평을 듣고 있다.

이 두 형제중 누가 먼저 정계에 뛰어들 것인가 하는 것이 커다란 관심사다.

로버트는 현재 버지니아에서 변호사 수습과정을 마쳤는데 국민학교때부터 대학원을 마칠 때 까지 전체에서 5등밖으로 나가 본 적이 없는 수재다.

실은 78년의 상원의원선거때 뉴욕에서 출마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약혼자인 에밀리·루이스·프랭크양이『좀 더 공부를 하고 난뒤 천천히 정계에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고 간곡히 권하는 바람에 뜻을 굽혔으나 그는 형 이상으로 노골적인 정치에 대한 야심을 밝히고 있다. 그는 최근 한 모임에서『케네디가에는 한가지 모토가 있다. 즉「대중은 개인에, 개인은 대중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를 위해 85년 上院의원선거에 출마할 것이지만 최종결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명히 출마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또하나 유력한 점은인는 케네디대통령의 바로 손아래 여동생인 진여사의 장남 스티브2세. 현재 콜럼비아大 법학부에 재학중으로 뉴욕의 청년정치서클을 이끌고 있는데 의상혼을 닮아 대중연설에 능하다.

그는 어떤 주제에 관해서도 2~3시간 이상 연변을 토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기발한 말을 잘 끄집어내기 때문에「언어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그가 선거에 출마하여 연설을 한 경우, 대중들은 故 케네디대통령이 되살아난듯한 착각마저 느끼게 될것이라고 말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스티브는 로버트와 마찬가지로, 뉴욕을 기반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다. 즉「한 가족끼리는 서로 투쟁하지 않는다」는 가훈 제1조 때문이다. 따라서 둘중 하나는 필연적으로 양보하게 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한편 케네디대통령의 장남 존은 비록 지금은 나이가 어려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자식이 분명히 정치에 뛰어들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수년후면 조제프나 로버트및 스티브와 함께 당당히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4명의 선두주자 외에 대풍의 눈을 꼽는다면 로버트상원의원의 장녀로 로버트·2세의 누나인 캐더린·다운센트부인을 들수 있다.

캐더린은 11자매의 장녀로서 아버지가 돌아간뒤 훌륭히 어머니를 모셨고, 지금은 환경보전문제전문가로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금년32세로 두 아이의 어머니인 캐더린은『부모는 자녀들의 유아기 교육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케네디가의 가훈을 최소한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국민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는 85년까지는 가정에 남아있을 것같다.

그러나 캐더린은『아버지가 암살당한 순간부터 이미 나는 정치와 멀어질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있어 85년에는 남편 타운센트씨와 협의하여 출마한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정계 소식통들은 보고있다.

"한家族끼리 절대 鬪爭않는다"家訓 1호

英王室 교육방법 본 딴 특유교육시켜와

이렇게 해서 케네디가의 정치후보자는 5명이 되었다. 나머지 젊은이들중 정치에 뜻을 두고있는 사람들이 몇 있기는 하지만 일단 85년까지는 5명이 유력하다.

그러나 앞으로 10년~20년 앞을 전망한다면 케네디가문에선 어떤 형태로든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15~20명선이 될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이들의 나이가 대부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서로 싸우게 될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한 가족끼리는 절대로 투쟁해선 안된다」는 케네디가의 가훈을 깨는 것이 되므로 과연 결과가 어찌 될지 궁금하지 않을수 없다.

한편 이토록 명성을 떨치고 있는 케네디가문은 자신들 특유의 교육방침을 대대로 이어오고 있다.

조부인 조제프·케네디는 자식들을 훌륭한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 고대 영국왕실의 교육방법을 본딴 교육을 존, 로버트, 에드워드등 자식들에게 가르쳤고, 이들은 다시 자기들의 아이들에게 이를 그대로 전수했다.

케네디가문의 교육은 특히 대인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사람과의 관계는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사람을 처음 만난 순간 그를 제압하는 방법등을 가르쳤다.

『긴장하지 말고 상대를 정면에서 바라보라. 자잘한 미소를 머금고 상대의 눈동자 바로 밑을 응시하라. 시선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눈동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면 상대가 거북한 인상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시선을 외면하면 반대로 불쾌감을 느낄수도 있다. 눈동자 밑을 부드럽게 바라보면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끌어들일수가 있다.

또 악수를 청하는 손의 위치를 허리위치로 하면 소극적으로 보이고 가슴 높이라면 품격이 떨어진다. 그 중간선이 적당하다.

「처음 뵙겠읍니다」「안녕하십니까」하는등 인사말을 건네며 상대보다 먼저 손을 내미는게 좋다.

악수를 나눈뒤 곧바로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거나 담배를 꺼내어 불을 붙이면 안정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주기 쉽다.

되도록이면 상대가 말을 먼저 하도록하여 처음에는 듣는 입장을 취한다. 남의 말을 경청하기를 잘한다면 친구를 잃는 일은 없다.

자신의 의견을 생각나는대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 의견을 제시할때는 신중히 생각해서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조용조용히 말하라.』

이같은 대인관계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지적하여 가르치는 케네디가의 가정교육은 바로 정치인 교육 그것임에 틀림없는 일이다.

이같은 정치가 교육을 어릴때부터 끊임없이 받아온 케네디가의 젊은이들이 과연 앞으로 미국정계에서 얼마나 두각을 나타낼수 있을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NANA 통신·EDITORS PRESS SERVICE)

한국일보의 광고효과를 말해주는 한국 안내 광고란

구독신청 533-2361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海外토픽

링컨 코위의 石工 자연공원 직원인 보브·크리스먼씨가 링컨대통령의 코에생긴 균열을 메우기위해 안전로프에 매달려 작업중이다. 크리스먼씨는 러시모산에 있는 대통령석상을 유지관리하기위해 매년 7월 손질을 하는 4명의 조원중 1명이다. 【UPI】

한입먹자풍조 멕시코蔓延·

택시운전사에서 政府관리까지

라·모르디다―꽃이름이나 패션상표의 이름이 아니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멕시코에서 건수만 있으면 너도나도「한입」먹자는「한 입」의 뜻이다.

부패와 뇌물, 영향력행사등 각종 행태로 빚어지는 이「한입」은 택시운전사로부터 대기업, 말단세리로부터 최고위관리에 이르기까지 만연해있어 멕시코의 경제를 좀먹고있으며, 최근의 은행국유화등 일련의 사태로 노정된것처럼 멕시코의 경제가 파탄직전에 이른데에는 이러한 풍조가 숨은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것이 사실이다.

경제위기에 몰린 멕시코정부는 민간은행의 국유화와함께 전면적인 외환(外換)통제를 실시하고 국민에게 해외에 투자한 자금을 국내로 거둬들일 것을 촉구하는 한편 공무원들의 직위남용과 뇌물수수·금품강요와 횡령등에 철퇴를 내릴 부패금지법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처가 뿌리깊은 부정부패를 근절시킬 것으로 믿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않다.

어떤 사업가는 연방정부의 한기관에 강력호스를 납품하기 위해 협상을 벌인결과 총금액의 15%를 상납하기로 낙착을 보았다.

그만하면 성공적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며칠후 새로운 제의가 왔다. 납품액을 비싸게 조정해줄테니 상납을 더하라는 내용이었다.

라·모르디다의 풍조는 보다 낮은 계층에서도 마찬가지로 널리 퍼져있다. 교통순경들은 사소한 일로도 곧잘 자동차를 세우며, 심지어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호각을 불어 보통 50페소(75센트)씩 뜯어낸다. 순경들은 여중 얼마는 또다시 상관에게 상납해야한다. 고급공무원들의 비위에 대한 소문은 끊이지 않고 꼬리를 물고있다.

포르티요대통령은 지난9월1일 연기중 마지막 의회메시지를 통해 경제난국을 벗어나기위한 은행국유화등 일단의 비상조치를 발표하면서『나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12월1일까지 내 손이 뇌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었다.

그의 후계자인 미겔·데·라·마드리드차기대통령 당선자도 부정부패 근절을 주요정강의 하나로 내세우고있다. 그는 대통령으로 선출되기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역사를 통해볼때 모든 정권이 부패와 사회적 부도덕의 문제를 겪어왔다.

부패란 영구적인 인간조건의 하나이다. 문제는 그것이 확산되지 않고 축소되도록 노력하는데 있다』고 소신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한 분석가는『미·라·마드리드대통령당선자가 멕시코인들의 가정풍습이 되어버린 부정부패를 소탕할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면서 멕시코는 부패를 퇴치하지 않는한 결코 발전할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AP=本社】

聖地서 少女 암完治 20세기 65번째 奇蹟

교황청의 위촉을 받은 프랑스남부 루르드의 국제의학위원회가 다리에 암이 생겨 다리를 잘라야할 운명에 놓인 소녀가 마지막 수단으로 피레네산맥에 있는 聖地베르나데트동굴을순례한뒤 암이 완치된 사실을 조사한 결과 과학적으로 입증할수없는 기적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교황청에 의해 1900년이래 65번째 기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시칠리아소녀 델리지아·치릴리(18)는 지난 76년 다리에 생긴 암이 악화, 생명을 연장하려면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베르나데트성지를 순례한뒤 병이 완쾌됐다는것.

루르드지방에 있는 베르나데트동굴은 1858년 우물가에 앉아있던 프랑스의 한 소녀앞에 3차례 성모마리아가 나타남에 따라 성지로 지정돼 매년 수백만명의 순례자들을 끌고 있는데 1900년이래 베르나데트 동굴을 순례한 수천명의 환자들이 병을 치유했으나 그중 64건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AP】

美테네시州 오락실 노래하는 로보트들

엘비스·프레슬리와 앤드루·잭슨의 흉내를 내는가하면 방문객들에게 세레나데를 불러줄 로보트들이 내년에 개관될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의 최신 오락센터에 선보인다고.

현재 내시빌에 3백20만달러를 들여 짓고있는 방5개짜리 오락센터에는 25가지 재치있는 로보트들이 방문객들을 즐겁게 해줄 계획이라는데 앤드루·잭슨과 똑같은 로보트가 말에 올라앉아 앙과함께 이중창으로「뉴올리안즈 전투가」를 부르면 이번에는 많이「시골말로 태어난 기쁨」을 독창한다는것.

또다른 방에서는 행크·윌리엄즈와 엘비스·프레슬리와 똑같은 로보트가 노래와 함께 그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UPI】

讀者 페이지

■投稿환영

<88년 서울올림픽의 변화>
JAPAN을 ZAPAN으로, 숙회하는 마음으로 참싸게면 단행하다.
—일본정부—
崔부현 (미국 시카고)

<천벌>
역사조작때는 주더가, 승부조작때는 켁이 강타.
—일본대폭식—
하영규 (충무시 ○○동 주공아파트 8동 406호)

<정답>
문제: 「침략과 비슷한 말은?」
해답: 「진출」

★<첫날밤의 잠꼬대>
여보 연탄불, 연탄불.
—이민온 한국아주부—
甘中 (Va Beach U.S.A)

오석주 (釜山 한국서 삽니다)

<육교밑의 노총각 구두닦이가 웃으며 즐기는 이유>
「남들이 보기 어려운 곳을 보는 재미로 삽지요. 아주 죽여가 줍지요.」
원철연 (서울에서는 발광각각을 모르겠더라)

<마누라는 명창>
몬타령은 끝내준다.
백○○ (○○나서원)

<공존의 법칙>
마누라의 허영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라도 남편의 허세가 절대로 필요하다.
안대균 (원주시 반곡동 1-2-13)

<추석 귀성열차표 예매현장에서 없어진 골동품을 찾습니다>
대나무 장대.
—수집가—
동그라미

<튀기기선수 부부>
남편은 튀김장사하느라고 튀기기에 바쁘고 아내는 자식자랑 한다고 튀기기에 바쁘다.
김○○ (土月文友會 釜山지부 ○○○)

<연습>
어느 뱀자가 유언을 남기겠다고 가족들을 불러놓고는 몇마디 말을 남기고 죽었다. 그러나 가족들이 한참 통곡을 하고 있을 때 뱀자가 눈을 다시 뜨고는 하는 말이「오늘 연습은 그만 하기로 하지.」

—83학년도 일본고등학교 시험문제서—
文홍석 (재미동포)

<동금 원상복구하라>
영어에 지장 있다.
—제비족—
이석기 (미국하와이서)

지금 웃는중 落書

<어느공처가의 주례사>
만장하신 친지, 하객 여러분! 결혼이란 신부는 바가지의 여왕으로 신랑은 공처가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임을 본 주례의 경험으로 자랑스럽게 주장하는바입니다.
羅제비 (454 South Broadway Yankers N.Y. 10705 U.S.A.)
註=羅제비씨는 미국에 이민한지 5년된 대학1년생으로 낙서회에 가입하고자 함. 그는 그의 집을 몽실이 (큰누나 별명), 뚜꺼비 (큰형), 왕순이 (작은누나), 쫙제비 (본인)의 첫자를 딴 몽뚜왕쫙나서주식회사라고 부르고 있음.

<요즘 아이들>
엄마! 옥구는 파인애플도 모르는가봐.
許○ (서울 ○○구 ○○동 ○○의 31 3통3반)

<소비자는 왕>
그러나 가짜 왕이다.
—악덕상인—
강우현 (전북낙서동호회)

<마누라가 나보고 멍탕 먹지 말란다>
발암에 치다고.
동그라미 (후손속)

<우리엄마의 장갑>
아무리 봐도 꼭 이상한 고무장갑이다.
—꼬마아들—
최정일 (미국 시카고에서)

<나서계의 순교자>
노총각·노처녀·실연자·공처가… 또 뭐던가…
이정재 (서울 ○○구 ○○동 ○○의 38)

<실컷벗은어느여배우왈>
더 이상 벗지 않겠다.
—어디 더 벗을것이 있겠소—
피카소항소 (서울성북구하양동1-6)

<철없는 아내>
남성의 지적인데도 바가지를 긁어대는 우리 아내.
김갑철 (용하여 감사합니다)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민 병 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ARE YOU PULLING MY LEG?

어느 유학생이 학교 cafeteria(구내식당)에서 같은반 학생과 점심을 들던중 「내 roommate가 이번에 10만불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 My roommate won a hundred thousand dollars of lottery. 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Are you pulling my leg? 라고 말했다。

「당신이 내다리를 잡아당기는 겁니까?」로 알아들은 이학생은 No. 라고 대답해 놓고서도 왜 갑자기 Are you pulling my leg? 라는 말이 튀어나왔는지 이해하질 못했다。

pull one's leg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웃으운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다」의 뜻으로 「농담이겠죠?」「놀리시는 거죠?」에 해당한다。

「처음에는 그사람이 백만장자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그가 농담을했다는 것을 알았다」를 영어로 해본다면 At first, I belived that he was a millionaire. Then I realized he was pulling my leg. 라고 하면

된다。I just discovered gold in my back yard. 「우리 뒷마당에서 금을 발견했다」 고 하는 사람에게 You're pulling my leg. 라고 했다면 「농담이시겠지요」 라는 말이 된다。

「농담이시겠지요」 에 해당하는 말로는 You'r joking. You must be kidding. 등이 있다

A : There's an elephant loose in the street !
B : Do you expect me to believe that?
A : Really ! It's true !
B : How did it get there?
A : It escaped from the circus.
B : Are you pulling my leg?
A : 거리에 풀려난 코끼리 한 마리가 있어요。
B : 그걸 믿을거라고 생각하세요?
A : 정말이에요! 진짜라구요!
B : 어떻게 거리로 나왔지요?
A : 서커스단에서 도망쳐나왔어요。
B : 놀리시는 겁니까?

※loose(lu:s) : 풀린, 매지않은。 lose(lu:z) 「잃다」와 혼동하지 않도록。
roommate : 동숙자
lottery : 복권, 운

HE'S GONE FOR THE DAY.

직장에서 어느동포가 미국인 동[illegible] 전화를 받게 되었다。상대방이 찾는 사람은 마침 퇴근해버리고 없는데 「그사람은 퇴근하고없다」는 말을 한다는것이 얼른 생각이 안나서 He's out now. 라고 해버렸다。

그러자 외출했다는 줄로 알고서 상대방이 다시 When do you expect him back? 「언제 그사람이 사무실로 돌아옵니까?」 라고 물어왔다。그래서 이번에는 He went home. 「그분은 집에 가셨읍니다」고 해주었다。그제서야, 상대방이 전화를 끊었다。

물론 위에 나온대로해서 안통하는것은 아니나 10년이상이나 영어공부를 했으니 그정도야 나오겠지만 어떤분들은 너무 어려운 말들만 유식하게 늘어놓아서 결국은 상대방 미국인 조차도 알아들을수 없는 말만 나열하는 분들이 있다。

이와같이 일을 끝마치고 퇴근해버린 경우 「그사람은 퇴근하고 없다」의 정확한 표현은 He's gone for the day. 이다。

A:Hello, M. B. C. Trading Company. May I help you?
B:Hello. Is Mr. Brown there?
A : May I ask who's calling?
B:This is Jack Jones.
A:Hold on a moment, Mr. Jones. I'll see if he's in.
(A few seconds later)
I'm sorry, but he's gone for the day.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B:Please tell him that I called.
A:M. B. C. 무역회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B:브라운씨가 계신가요?
A:누구신지요?
B : 잭 조운스입니다.
A:잠깐만 기다리시죠, 조운스씨. 그분이 자리에 계신지 알아보겠읍니다.
(잠시후)
미안합니다만 퇴근하셨는데요. 전언이 있으신지요?
B:제가 전화했다고 전해주세요.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312) 966-4050
책: 제1권(12불), 제2권, (12불), 제3권(12불)

連載 소설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間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畫

95

지난줄거리

시골에서 올라온 다혜가 갑자기 훈찬에게 여행가자고 조른다。그것도 아무도 없는 가을 바다를。훈찬은 가을바다와 가을산을 오르기로 합의하고 짐을 꾸려 떠났다。어산방조제 뚝길 위에 올라가 훈찬은 다혜를 갖고 싶다고 소리치고 다혜는 고개를 흔든다。두 사람은 뜨겁게 한낮의 뚝 위에서 입을 맞춘다。지나는 차들이 빵빵거려도 아랑곳 없이。

다혜의 입술이 이렇게 달콤해 본 적은 없었다。그리고 뜨거웠다。다혜의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치는 것 같았다。전에 없이 적극적인 포옹이었고 과거에 느껴 보지 못한 대담한 입맞춤이었다。

다혜에게 어떤 변화가 오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어쩌면 그녀의 모든 것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둘 것만 같은 예감이었다。그녀는 언제나 차가운 입술이었고 언제나 가벼운 포옹 뿐이었었다。어떤 때는 인형같은 여자라고 생각할 정도였었다。

바닷바람이 세찼다。그러나 다혜는 뜨거웠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클랙슨을 두드렸지만 우리는 그렇게 뚝길 위에서 입맞춤을 계속하고 있었다。

『내려갈까?』

내가 먼저 다혜에게 한 말이었다。내가 물러서지 않으면 다혜는 그대로 서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

힘없이 대답하고 멋적게 웃었다。바람에 흩날린 머리칼을 손가락으로 빗으며 다혜는 바닷가를 가리켰다。

『바다가 육지라면…。』

마치 노래처럼 그녀가 말했다。

『그나마 바다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지구는 전쟁으로 벌써 망했을 거다。바닷속에 사는 녀석들도 생각해줘야지。사람만 동물이니?』

갑작스럽게 변모한 다혜에게서 나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

『내가 운전할까?』

『그래。』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배낭지고 올 걸 그랬어。내가 밥하고 반찬 만들어서 먹여주고 싶은데…。』

『호호호…。』

『왜 웃어?』

『짜릿해서 기절하겠다。』

『정말야。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

『대신 다른 걸로 해봐。』

『그게 뭔데?』

『몰라서 물어?』

나는 능글맞게 말했다。

『우리 진짜 신혼여행 가는거야?』

『예행연습이란 거 있잖아。』

『……。』

다혜는 대꾸없이 열쇠를 꽂고 시동을 걸었다。

『내게도 희망이란 게 있겠니?』

『자꾸 말 시키면 급브레이크를 우아하게 밟을 수가 있어。충격에 의한 덕뼈의 손상이나 기타 모든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찬이한테 있다는 걸 경고하겠어。』

『외교관 마누라같다。』

『그렇게 될지도 모르자。』

『나같은 사내도 외교관이 될 수 있겠니? 꼬부랑 글씨라곤 아이 캔 낫 스피크 잉글리시 밖에 모르는 게。』

『그게 최상의 영어 아닌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동차는 연포가는 길로 들어섰다。펼쳐지는 시골풍경이 짙게 익어가고 있었다。익은 벼 모가지와 허수아비의 동작이 너무 대조적이었다。참새떼가 허수아비 등을 탄채 꽁지를 들까불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나 갈대 좀 꺾어 줘。』

『갑자기 왜 이래?』

길가에 차를 세우고 다혜가 갈대 우거진 숲길을 가리켰다。

『갑자기 갈대가 되고싶은 거 있지?』

『흔들리고 싶어。』

『흔들리니?』

나는 말없이 숲길로 들어가 갈대를 한아름 꺾어 왔다。트렁크에 갈대를 싣고 한 개를 짧게 꺾어 앞유리 옆에 꽂았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것 같다。그렇지?』

나는 다혜가 그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내게 보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보드랍다가도 갑자기 날카로와 지는 수가 있었지만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여자처럼 보인 적은 없었다。

『난 변하지 않았어。』

『누가 변했대? 무슨 일이 있냐는 거지。』

『살아 있어。』

『누가 살아 있는 걸 몰라?』

『숨도 쉬고…。』

『옛날 애인 생각하며 신혼여행 가는 여자같다。』

『그랬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직감이긴 하지만 다혜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생각을 했다。혼기가 찼으니 집안에서 좋은 자리를 주선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교육가 집안이란 믿을만한 방패와 유명한 사학재단의 교장선생이란 직함 그리고 다혜의 인물과 졸업장 때문에 더 서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딴데로 시집가래니?』

『……。』

다혜는 흘깃 쳐다보고 앞만 쳐다보았다。

『말해봐。괜찮아。』

『그럼 여태 몰랐어?』

『어떻게 알아?』

『짐작도 못해?』

『다혠 내꺼니까 한번도 다른 배석이 넘보리라곤 상상조차 않았지。누가 감히 내껄 넘봐。』

나는 괜히 소리를 높였다。

『내가 [illegible] 찬이꺼야?』

『내가 그렇다면 그런거야。』

『너무 자신만만하군。찬이는 너무 몰라。내가 그동안 얼마나 시달린 줄 알아? 선도 세번이나 봤단 말야。』

『뭐라고? 선까지…。』

『날 원망하지 마。다 찬일 위해서였어。』

『그게 어째서 날 위한 거니?』

『아버지가 찬일 싫어해。직업도 없고 주먹질만 하고…건달을 좋아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왜 취직 않고 노는 줄 알아? 아느냐 말야?』

『……。』

나는 대꾸할 말이 없었다。

『찬이가 직장에 나가도 우리 아버지 마음은 마찬가지야。지난번 그일이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결혼시키는 문제는 다르다는 양반야。』

『……。』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나는 차를 세우게 하고 다혜를 끌어내렸다。

『왜 이래?』

『지금부터 나한테 말 시키지 마。혼자 생각해 보겠어。』

나는 운전대에 앉았고 다혜는 큰 눈을 껌벅거리며 옆자리에 앉았다。

시동을 걸고 엑셀러레이터를 힘주어 밟았다。속도계의 바늘이 가볍게 올라섰다。

『우리 올려!』

다혜는 말없이 우리를 올렸다。나는 무섭게 질주하기 시작했다。구불구불 이어진 시골길이지만 속도계는 백이십킬로미터 아워를 가리키고 있었다。

『바보처럼 이러지 마!』

다혜의 째지는 소리가 들렸다。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죽고싶으면 혼자 죽어。난 살아야 돼。속력 줄여!』

『말 시키지 마。』

나는 전혀 엉뚱한 화풀이를 하고 있었다。

『바보!』

『그래 난 바보다。』

『좋아。맘대로 해。난 뛰어 내리겠어。』

다혜가 차문짝을 벌컥 열었다。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다。다혜는 멍청해진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말했다。

『말 안시킬게 천천히 가。』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천천히 몰았다。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연포 들어가는 입구길은 포장되지 않았다。흙먼지가 보얗게 일어났다。돈 좀 있다는 사람이 개발한 해수욕장이라고 들었는데 좀 지나친 것 같았다。포장할 돈으로 더 중요한 사업을 하느라고 그랬겠지만 포장해서 나라에 기증하는 일도 그렇게 못된 일은 아닐것 같았다。하긴 그래야 돈 좀 벌수 있는 건지도 모른다。

해수욕장은 을씨년스러웠다。빽빽하게 들어찬 건물들이 마치 폐허의 빈민굴같이 느껴졌다。썩 세련되게 지어진 건물도 왠지 그랬다。철지난 해수욕장 풍경은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빽곡하게 지어진 건물들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이었다。

아무도 없는 유령의 도시라고나할까。어쨌든 우리는 철 지난 바다를 구경하기 위해 달려온 사람들이었다。

민가에 방 하나를 얻어놓고 밖으로 나왔다。

『반찬이라곤 해산물이나 좀 준비하슈 머。후딱 댕겨오슈。』

수더분한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들의 때 늦은 여행이 불쌍사나왔던지 해산물을 사러 바닷가에 갔다오겠다고 했다。

아무도 없는 바닷가 풍경、오후의 햇살이 그래도 따뜻한 바닷가、해조음이 살꽃해 보이는 바닷가、모래밭의 열기가 그래도 한 여유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화났어?』

다혜가 팔짱을 힘주어 꼈다。나는 그녀의 체온과 그녀의 열온 화장내음이 감미롭게 느껴졌다。바닷가에 몰여있는 고깃배가 혼자 춤추듯 흔들리고 있었다。야산 언덕에 서있는 별장의 색깔이 숲속의 정경을 침식한 것처럼 미워 보였다。그것이 내 소유의 별장이 아니어서 그런것일까?

『화났느냐니까?』

『안났어。』

『아깐 왜 그랬어?』

『누가 언제 [illegible] 그랬는데?』

나는 겸연쩍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말했다。

『농굴맞긴…。』

그녀는 힘주어 팔짱을 꼈다。내 팔꿈치께에 닿는 그녀의 가슴은 갑자기 내 욕정에 불을 당겼다。

『다시 선 볼래?』

나는 다그치듯 물었다。

『내가 도망가지 않으면 또 봐야할 팔자야。』

『도망가면 되잖아。』

『어디로 도망가란 말야?』

『우리집으로 와。』

『난 그러긴 싫어。제대로 결혼해서 살고싶어。』

『하면 되잖아。뭐가 무서워? 지금 어라도 당장 해버리면 그만이잖아。애새끼 하나 낳아 가지고 들어가봐。별수없이 사위자식도 내 자식여다 그럴테니까。』

『우리 아버진 그게 안통해。그리고 난 그런 자식 되긴 싫어。』

『넌…날 사랑하지 않는거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사랑 싫어해…직업도 없고 주먹질만 하는…

계산속에서 주판질하며 시집가는 여자는 아니지만

『이상한 논리다。사랑한다면서 이렇게 아버지의 승낙없이는 못한다는 거지? 사랑이 약하다고 실토하는 게 낫잖겠니?』

『그래、아무렇게나 생각해。변명같은 건 하고싶지 않으니까。』

우리는 쓸데없이 말꼬리를 잡고 태각거리고 있었다。

바닷가의 백사장 위쪽에 있는 솔밭은 여름의 잔해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우리는 솔밭에 앉아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바람을 맞았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날 괴롭혔는지 모를 거야。그 얘길 다 하자면 전집 한 질은 될거야。어머니도 처음엔 내편을 드는 것 같더니 시간이 갈수록 달라질정도야。상대가 워낙 괜찮다는 생각이 든 거야。』

『도대체 뭐 하는 자식들인데 그래?』

나는 은근히 울화가 치밀었다。물지 않아도 상대 남자의 직업은 뻔한 것이었다。돈을 잘 번다는 부류이거나 사회적 명성을 지닌 집안의 아들이거나 공부 잘해서 괜찮은 자격증 가진 부류일 게 뻔했다。

『말해봤자 빤하잖아?』

『빌어먹을 네 아버지도 별수 없는 속물이구나。』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우리 아버진 속물야。그러나 어저하나만은 잊지 마。딸을 사랑하는 부모의 공통분모 때문이지 결코 사위덕을 보려는 속셈은 아더라는 걸。말이야 바로 해서、어느 누구라도 찬이 같은 사내를 사위로 맞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마말로 하면 전달이잖아。직업도 없고 일류대학도 아니고 홀어머니에 외아들이고、그렇다고 자랑할만한 집안도 아니고… 나며섬한 소리 한다고 그러지 마。사회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런 기준으로 찬이를 보게 되는 거야。물론 나는 결코 그렇게 보진 않아。찬이 같은 사람은 취직하거나 남 밑에서 일할 성질도 못돼。그러나 내가 원하는 걸 찬이가 내 앞에서만은 보통 사내이길 바래。난 그걸로 족해。그 이상을 요구한다면 내가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어。난 세속적으로 결혼을 계산에 의해 주판질하며 시집가고 싶은 여자도 못돼。난 그런 계산이 싫어。내가 그동안 숨겨온 것은 내가 찬이를 사랑했기 때문야。』

『알아、네 맘을…。』

나는 겨우 이 말을 했다。다혜의 말은 그른 게 아니었다。사회란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이었다。어쩌면 그런 기준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이런 소릴 하는건 아냐。그러나 내가 얼마나 갈등 속에 살았는지는 알아줬으면 좋겠어。선을 볼 수 밖에 없었어。그건 나를 지킬 수 있는 방패였어。찬이를 괴롭히지 않고、내가 이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었어。』

『우린 마치 연속극 주인공 같구나。』

『그럴지도 몰라。』

다혜가 소나무에 등을 기댄 채 피곤한 눈빛으로 바다를 내려다보았다。바다는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멀리 밀려나 있었다。모래밭이 드넓게 드러났다。바다 가운데 떠있는 섬위로 갈매기처럼 보이는 새떼가 날아갔다。

『내 맘 알겠어?』

한참만에 다혜가 물었다。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법을 생각했어。』

다혜가 또 한참만에 입을 열었다。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바다쪽으로 몸을 돌려 앉았다。

『내게 등을 보이지 마。섭섭단말야。』

다혜의 손이 내 어깨를 짚었다。나는 갑자기 서러움이 몰어나는 느낌이었다。사회적으로 보면 나는 실업자라는 사실을 부정할수 없었다。돈벌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접해줄리 없었다。다혜 아버지의 고집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내가 다혜 아버질 만나겠어。』

몸을 돌려세운 내가 다부지게 말했다。다혜의 눈빛이 내 말을 거부하고 있었다。

『내가 해결하겠어。』

강조하듯 다시 한번 말했다。

『바위에 계란을 던지겠어? 아버지 마음은 굳어졌어。찬이가 만난다고 해서 변할 일이 따로 있지。오히려 더 복잡해지기만 해。점수를 더 잃는다니까 그래。』

『결판을 보겠어。』

『제발 그 성질 쓸 때를 좀 가려봐。내가 일년 동안이나 싸워도 바늘 들어갈 자리도 없었어。』

『그럼 어쩌자는 거야。헤어지자는 거니?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여기 온거니? 네 맘을 이미 결정해놓고 통보 하려는 거잖아。까놓고 말해봐。할 얘기 있으면 다 해봐。』

내 가슴 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한꺼번에 튀어 나왔다。다혜는 큰대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좋아。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소갈머리 없는 여자가 아니란 것만은 알아야 돼。』

다혜는 그동안 아버지와 식구들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를 차근차근 얘기했다。내가 시답잖은 청년이란 건 내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이었다。사회적 통념으로 내가 얼마나 보잘것 없는지도 물론 알고 있었다。결혼이 일정한 계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부모 입장에선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그 계산을 따라가는 게 정도인지도 모른다。

다혜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동안의 갈등이 얼마나 컸으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몇번인가 맞선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지?』

내가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무작정 기다린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빌고 들어갈 일도 아니잖아。』

『우리 도망갈래?』

『그러긴 싫어。』

『그럼 어쩌겠다는 거야?』

『나、유학가기로 했어。』

『뭐라구?』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다혜가 내 손을 잡고 따라 일어났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야。물론 핑계김에 공부도 하고싶어。욕심이 지나친지 모르지만 공부를 더 해서 무엇이든 해내고 싶어。이번에 번역일을 하면서 자신을 얻었어。어대로 썩지 말고 공부를 하자는 생각과 우선 아버지와 가족들의 성화를 벗어나서 찬이와 내 일을 꼼꼼하게 다져가고 싶어。일、이년 지나면 아버지 생각도 바뀔 거야。그 동안 찬이는 무엇이든 찬이의 길을 가지 않겠어? 지금 그런 꼴로 살아가는 건 정말 싫어。』

다혜의 눈가에 물기가 흐르고 있었다。가늘고 여린 물기였지만 내가슴엔 커다란 폭포같이 느껴졌다。가슴이 뭉클하게 떨었다。

<다음호에 계속>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범한서적

◉한국전집류 ◉고전, 현대소설
◉유치원 백과, 새생활 백과사전
◉사전류, 가정요리, 꽃꽂이 ◉광복20년

1712 Queen E. 전화 : 690−2216
북미주총판책임자 최 규 흡

사진

새 하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식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 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 − 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마련.
전화 : 532−1054(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 기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님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불라도)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전학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복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D.Y. Import Co. Canada

한국 밑반찬 만드는데 경험이 있는분 구함.

전화 : 622-5379 MRS. 오

Donut Shop에서 주말에 밤일, 낮일 「Part Time」하실 여자분 구함. ★전화는 오전11시 이후
전화 : 282-3553

웨이터, 웨이트레스
18세이상 주말 학생 파타임 구함 (1명)
(목·금·토 저녁에만) 경험 없어도 됨.
114 Laird Dr. 전화 : 421-6016
일본식당(오후 2시30분 이후 연락바람)

식품점에서 일할 Helper 구함.(남자분)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주7일간)
삼복식품 전화 : 743-8270

5년이상 제과기술직에 종사하시던 분을 찾읍니다.
전화 오전9시-4:30사이
749-1822 Mr. Kim

Sales Help wanted (베다스트×로렌스)
현대식 사무실, Leads supplied, parking
Mr. Roy 전화: 789-1241 Louis Roy Ltd., Realtors

출퇴근 하시면서 애들 돌봐 주실분
(베더스트 × 휜치)
전화 : 665-9585

샌드위치숍에서 일하실 카운터 헬퍼구함. ◉주5일, 추레인 시킴, 직접 내방바람.
68 Yonge St. LULU'S CAFE.

웨이트레스 구함(Full Time)
전화 : 532-2727

입주하셔서 집안일 도와주실분
(중국가정임)
전화 : Mrs. Law 493-6190

입주 또는 출·퇴근 하시면서 애기 봐주실분 구함
◉주5일, 스카보로 북쪽.
전화 : 496-1664 Mrs. 리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Grade 7부터 Grade 9까지의 수학·과학을,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엔지니어가 개인지도 또는 그룹을 지도함.
전화 : 293-3149 Mr. Sam Lee

양장, 재단 개인지도(휜치 & 베더스트) 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 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구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매매

Coffee Shop
주매상 : $4,000(7:00 a.m.~5:00 p.m.주5일 영업)
Rent : $1575, 리스 : 3년반+5년, 10만불 Down,
good profit. 가격 : $165,000
황용현부동산주식회사
Call : 이헌영 449-8644(B), 686-0207(R)

그로서리 Store 매매, (이층은 살림집)
년매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개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TUCK SHOP(시간 짧고 이윤좋은 가게) $15,000다운+모기지 개인사정으로 급매, 주매상: $2,500 아스킹: $25,000+스탁
전화 : 275-9507 20 Mississauga Valley Blvd.

버라이어티 가게 급매
주매상 : $4,000, 리스: 1년(650불) + 5년
550 Sheppard Ave. W.

★Coffee & Snack Shop(주6일 Open)
Office Building 과 Shopping Mall내에 위치함.
주매상: $10,000, 리스: 4년+5년 옵션
가격: $400,000
★Dry Cleaning Business
고급주택과 Apt.가 밀집한 위치.
주매상 : $7,000, 리스: 9년 가격: $265,000
A.E.Lepage Mrs. Woo(우) 전화 : 741-9170

각종 알로베라제품 판매, 쥬스·크림·로숀·약용크림외 다수품목 보유, 최저 염가 봉사합니다.
5439 Yonge St. 전화 : 222-4717 Mrs. 김

남자옷 맞춤과 남자옷 파는가게 매매
스카보로 플라자.
1년 Sales $200,000
주인이 정년퇴직 관계로 팔고자 함.
전화 : 752-6466 · 491-2573(저녁)

House for Sale
Thornhill에 있는 (Bayview & Willowbrook area)
-5 Bedroom 4 Bathroom 2 Fireplace Hollywood Kitchen Family Rm. Finished Walk - out Basemt & Much more.
-Close to everything(School, Shopping Centre, etc.)
-Asking $199,500
Call Mr. Ivin Savov 889-3329

1981년 덧취 벤 추럭(Ram)
6기통, 25,000Km, 가격: $5,800
전화 : (B)622-2643 (R)626-1843

실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포튜갈 빵가게및 버라어스티가게, 지하실, 2층 아파트 세놓을수 있음 Asking 13만불(권리금+건물) 2만5천불 다운 페이 원함. 1602 Dufferin St. 전화 : 657-1554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오셔서 보시고 문의바랍니다.
전화 : 294-8164

GROSS 캐쉬레지스타 팔고자 함.
관심 있으신분 내방바람
468 Cosburn Ave.(Greenwood & Cox well)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세탁소 매매(pick-up) (Almar Cleaners)
640 Rogers Rd.(At two Block west of Keele)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오샤와 시내 주택가에 위치한 3층 아파트빌딩 좋은 가격에 팝니다. 한달인캄 : $1,200
아스킹 : 11만8천불. 전화 : 293-3515 MIKE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좋은 조건의 가게 싸게 팝니다. 관심있으신 분 직접 내방요. 주매상: $4,000
430 York Blvd., Hamilton(해밀톤)

광고문의 533-2361

여권분실

분실자성명: 전성혜(여) Korea
여권번호: 1152065
연락처: 425-2198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방세 혹은 하숙합니다. 1 Bedroom
Near Dufferin Subway. 여성에 한함.
전화 : 279-2369(R) 533-2361(B) Mrs. 조

집렌트

4 Bed Room House전체를 세놓고자함(Brampton지역)
2 Bath Room, Family Room, Fire Place, 차고등.
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593-8943

Flat for Rent(Euclid & Harbord)
$375/M.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사이에 연락바람.
전화 : 977-3758

집세놓음 (4 Bed Rms) mimico area.
중앙식 Air Con . 차고 있음. 교통 매우 편리.
Downtown에서 5분 거리 전화 : 368-9018. 366-0960

단층집(Semi Detaches) 4 Bed Room 세놓음.
Home Bar등 지하실 꾸며져 있음. ($650/M)
스카브로지역(Neilson & Sheppard). 전화 : 968-9450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세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관 광

코라메 관광(주)(제일여행사 2층)
일년내내 관광을 함께·····
649 A Bloor St. W. 전화 : 535-0853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등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파티·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광고문의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주잔 : 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미술연구소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RALPH M. LEVINE B.A.(Barrister and Solic 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배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사무용구및계산기

SB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